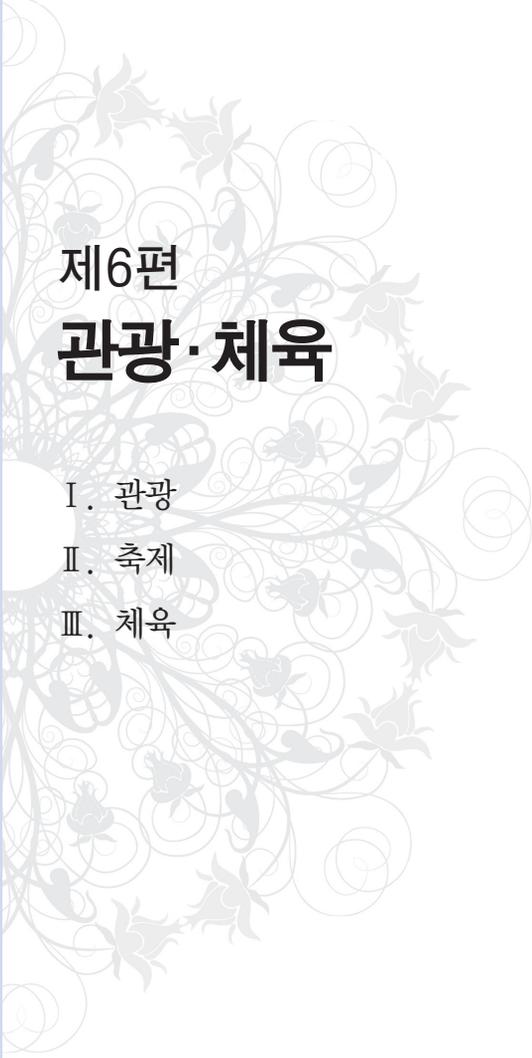


제 6 편

관광  
체육





## 제6편 관광·체육

- I. 관광
- II. 축제
- III. 체육



# I. 관광

## 1. 관광의 특성 및 개황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류가 당면한 자원고갈을 극복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래는 소득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자기실현 욕구가 증시되고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 등 관광여건의 기반이 형성되고 개선되어 관광행동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발전될 것이다.

관광개발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교통시설 개선은 관광객 증가를 촉진시키고 지역 생산물이나 일반 소비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산업의 입지조건 개선이나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가져온다. 관광개발은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강원도는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의료관광이 선정되어 지역발전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분야는 강원지역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양양군은 자연 및 지역산업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해돋이의 고장이라 하여 ‘양양’(襄陽)(오를 “양”, 해 “양”)이라 불리고 있으며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자원과 인위적 자원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관광과 녹색관광을 중심으로 관광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과 낙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계곡, 온천, 약수 등 자연관광자원

과 낙산사, 양양송이축제, 현산문화제, 연어축제, 송천 떡마을 등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동서·동해고속도의 개통예정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골든비치골프장, 오색로프웨이 설치, 연어테마콘텐츠 개발 및 산업클러스터사업, 해양테마파크, 해양심층수 특화사업, 송이벨리 조성사업,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매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따라서 천연림 설악준령과 맑고 푸른 동해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때가 묻지 않은 자연의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8천년의 역사를 가진 오산선사유적지 등 산재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정 지역이든 국가든 간에 지금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경제적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 발전기반과 함께 그 지역이 간직해 온 과거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료화하여 그 토대 위에서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인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 불가결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명품양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구축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관광가치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세계정세의 빠른 변화를 직감하고 가치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관광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 2.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광지 지정현황

### 1)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수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관광진흥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에는 관광사업을 더욱 세분화하여 ‘여행업’을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고,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며, 그 외에도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골든비치 콘도텔



오색그린어드호텔

2009년 12월말 현재 양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3개 업종에 5개소이며, 여행업에서는 일반여행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2개 업종 5개 업소, 유원시설업은 1개 업소,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펜션업에 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표1-1〉 관광사업체 현황

연별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일반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일반	국외	국내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2003		3	4	1	1	1		
2004		3	4	1	1	1		
2005		3	4	1	1	1		
2006		2	3	1	1	1		3
2007		2	4	2		3		4
2008		3	5	2	1	3	1	5
2009		2	3	2	1	2	1	5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년

## 2) 관광지 지정현황

관광지는 설악산이 양양, 속초, 인제, 고성군에 걸쳐 있는 398,539km<sup>2</sup>가 1970년 8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낙산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 8,659km<sup>2</sup>을 낙산도립공원으로 1979년 6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지정되었다.

〈표1-2〉 관광지 지정 현황

관광지별	관광지명	위 치	지정일자	면적(km <sup>2</sup> )	특 색
국립공원	설악산	양양, 속초,인제, 고성	1970. 8.24.	398,539	외설악, 내설악, 기암절벽 등
도립공원	낙산	양양	1979. 6.22.	8,659	해수욕장 및 송림 등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년 제47회

## 3. 주요관광권역 및 테마별 관광·레저

주요 관광권역 및 테마별 관광·레저는 설악·오색권, 양양·낙산권, 해안권, 숲·계곡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1-3〉과 같다.

〈표1-3〉 관광권역별·테마별 관광·레저

권역	특 성	볼 거리
양양·오색권	백두대간 중에 가장 높은 산(대청봉 : 해발1,708m)인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그 중 남쪽의 주전골과 점봉산은 봄 철쭉,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어내고 있다. 특히 오색지구는 옛날부터 오색약수와 온천이 유명하며, 산행 후 맛보는 씩씩향긋한 더덕과 푸른 약수밥, 산채나물 등 오색의 별미도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오색약수, 온천, 오색석사, 오색리 삼층석탑, 주전골, 흘림골, 점봉산, 대청봉, 백암·독주·설악·용소·치마·여심·12·옥녀폭포, 허브농원 오색령
양양·낙산권	양양읍은 설악산에서 발원된 계곡물이 남대천을 지나 동해로 흘러가는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남대천은 연어가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고향이며, 그 일대는 8천 년 전 신석기 유물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5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지닌 낙산사와 의상대 일출이 장관이며, 읍내에 5일장을 둘러보고 동호리의 섭국을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이다.	현산공원, 남대천, 5일장체험, 낙산사(사찰체험), 의상대일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수산항, 동호해수욕장, 골든비치리조트, 쉼비치리조트, 용천곰마을, 낙산·오산해수욕장

권역	특성	볼거리
해안권	7번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드라이브하며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해안마다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송림과 어우러진 하얀 파도가 파란 수평선과 어울려져 무척 아름답다. 영화촬영지인 남해항의 빨간 등대, 하얀 등대와 천연기념물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는 포매호가 둘러볼만하다.	하조대, 38°선 휴게소, 죽도정, 남해항, 왜가리서식지, 전포매리 백로·가옥, 마을단위해수욕장, 해안도로
숲·계곡권	50년 된 천연림이 뺨뺨이 들어찬 숲과 계곡이 잘 보존돼 있어 여름철 삼림욕과 계곡놀이엔 좋은 곳이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미천골휴양림은 심산 오지대로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이 대·소폭포를 이루며 길게 뻗어 있다. 천연림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로 삼림욕을 즐기고 몸에 좋은 불바라기 약수 한 잔, 그리고 물 반 고기 반 전설의 어성전계곡에서 발을 담가보자, 여름에도 땀속까지 차가움을 느끼게 한다.	송천리떡마을, 공수전계곡, 양양양수발전소, 서림리 3층 석탑, 서림리마을관리 휴양지, 갈천계곡약수, 구룡령옛길, 미천골자연휴양림, 불바라기약수, 법수치계곡, 면옥치리, 어성전계곡, 탁장사마을, 명주사

## 1) 양양팔경

### (1) 남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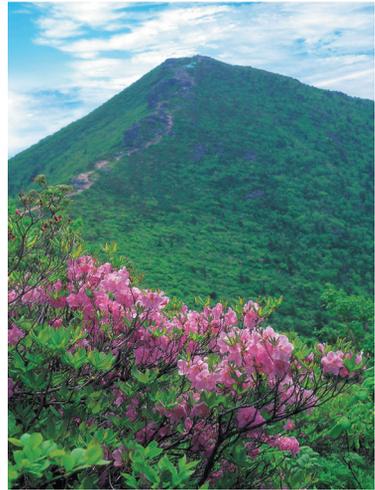
남대천은 총 길이가 70여 km 되는 하천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이다. 갈대가 무성하고 백로가 이따금씩 쉬어 가는 여유로움이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잡는다. 봄에는 황어, 7~8월엔 은어, 10~11월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 떼가 돌아오는 어머니의 강이다. 또한 이곳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뚜거리, 민물참게 등 희귀종 민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그 중 토착어종 뚜거리로 만든 뚜거리탕은 별미종의 별미로 손꼽힌다. 남대천 둔치에서는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 다양한 체험 축제가 열려 흥미를 더한다.



양양남대천 하구

### (2) 대청봉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설악산 대청봉은 해발 1,708m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공룡릉, 화채릉, 서북릉 등 설악산의 주요 능선의 출발점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또한 천불동 계곡, 가야동 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계곡이 이곳에서 발원한다. 대청봉 주위에는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잣나무 군락이 웅단처럼 낮게 자라며, 정상에서는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설악산 대청봉 전경

### (3) 오색령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는 애환과 동고동락한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지는 장관은 오색령에서만 볼 수 있는 특혜이다. 오색령은 사시사철



오색령 전경

설악의 비경을 뿔어내 관광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원도지역에서 여섯 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이라 했다.

### (4) 오색주전골

오색약수 인근에 자리한 풍치절경의 계곡이다.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내의 점봉산(1,424m) 북쪽 기슭에 뻗은 주전골은 옛날에 엽전을 주조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설악 지구대에서 가장 빼어난 계곡미를 자랑하는 주전골은 선녀탕, 용소폭포, 만물상, 흔들바위 등을 비롯하여 술한 명소를 품고 있다. 크고 작은 폭포와 기암절벽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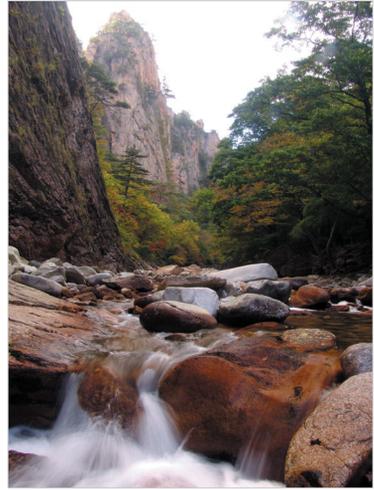
루어진 주전골은 피서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주변에 있는 오색약수는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병에 탁월하며, 평탄한 산길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등산객의 발걸음을 잡게 한다.

### (5) 하조대

원래 대(臺)의 정의는 ‘사방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이다. 그런데 ‘대’ 위에 정자를 주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마치 ‘대’가 정자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처럼 되었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위치한 이곳 ‘하조대’도 정자가 하륜과 조준 시절보다 한참 후인 정종 때 세워진 것으로 보아 그저 동해 바닷가 전망 좋은 터 한 곳을 하륜과 조준이 찾아 즐겼다가 하여 ‘하조대’란 이름을 먼저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조대에 있는 정자는 조선 정종 때 지어졌으나 퇴락과 철폐, 증수를 거듭하여 1940년 팔각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6·25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1955년과 1968년에 재건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해체·복원된 것으로 초익공(새 날개처럼 만들어진 공포 형식) 굴도리(남성적) 양식의 육모정이다. 지붕에 절병통을 얹어 소나무와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정자각 앞에는 조선 숙종 때 참관 벼슬을 지낸 이세근이 쓴 ‘하조대’ 3자가 암각된 바위가 있다.

하조대는 하륜과 조준이 머물렀다는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하씨 집안 총각과 조씨 집안 두 처녀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했던 사연이 그것이다. 이곳은 또한 태조 왕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하조대 맞은편에는 하얀 등대가 서 있는데 하조대와 더불어 연중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랑을 받고 있다.



오색주전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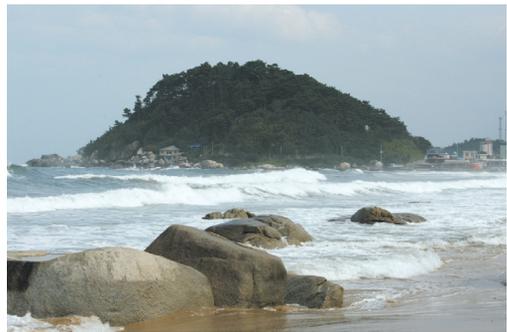


하조대 전경

- 초익공 : 익공형식은 포작계와 비포작계에 관계없이 살미 부재가 새 날개처럼 만들어진 공포 형식을 말한다. 이때 보 방향의 익공이라는 부재가 2개인 경우이다. 물익공이란 익공개수와는 관계없이 익공의 끝 모양이 새 날개와 같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게 조각한 것을 말한다. 대체 출목이 있는 포작계 익공은 이익공형식이 많고, 비포작계의 익공 형식은 초익공 형식이 많다. 초익공형식은 기둥머리를 ‘+’자로 파낸 곳에 창방과 익공이 ‘+’자로 짜여있고 그 위에 주두를 올리고 주두 위에서 보와 도리가 올라가는 형식이다.
- 굴도리 양식 : 도리는 단면의 모양에 따라 원형도리를 굴도리라고 부르고 방형도리를 납도리라고 부른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 따라 원을 남성, 양성으로 보았고 방형을 여성, 음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창덕궁의 연경당의 경우 남성이 사는 건물에는 굴도리를 사용했고, 여성이 사는 건물에는 납도리를 썼다.

### (6) 죽도정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한 죽도는 둘레 1 km, 높이 53m로 예전에는 섬이었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돼 있으며 송죽이 울창해 죽도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난 장죽을 진상하기도 했다. 정상에 죽도정이 있는데 전망이 훌륭하며 산책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기도 하며 죽도 해수욕장은 길이 2km, 면적이 1,400㎡이며 모래가 곱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피서지로 적당하다.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동산리에서 바라다본 죽도전경

### (7) 남애항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이다. 그 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 고래사냥 노래의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 뿐...”이라는 가사가 입가를 맴돈다.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과거에는 바닷가에 핀 매화가 이 마을에 떨어져 낙매(落梅)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해안가의 바위섬과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일출의 황홀경을 맞으며 새벽을 깨우는 어촌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만나게 되어 어선에서 바로 내린 싱싱한 회맛으로 찾는 이의 미각을 즐겁게 한다.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애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싯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남애항 전경

#### (8)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내에 있는 '의상대'는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 거리의 바닷가 절벽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낙산사 의상대 일출

파도소리와 풍경소리 그리고 목탁소리와 산새소리가 지평선 끝에서 들려오는 곳, 일출의 장관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 2) 휴양림

### (1) 서림계곡휴양지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룡령을 넘어 달리다 보면 차를 멈춰 쉬고 싶은 곳,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불바라기 약수터가 가까운 곳에 있고 넓은 시냇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 산자수려한 곳이다. 마을관리휴양지내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이벤트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서림계곡 전경

### (2) 미천골자연휴양림

양양군 서면 황이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천골은 백두대간 동편 오지로 원시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과 계곡에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휴양림 입구에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가 고려 말에 폐사된 불교 수도원 터인 선림원지가 있고, 홍각선사탑비와 부도 등 신라시대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



미천골자연휴양림 가는길

수령 50년 이상의 박달나무, 참나무, 피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활엽수가 울창하며, 기묘한 형상의 암반 사이로 흐르는 맑고 긴 계곡이 장관이다. 토종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불바라기 약수터가 있다. 야생동식물과 버섯, 나물 등의 산림부산물도 풍부하다.

### 3) 체험마을

#### (1) 탁장사마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주변경관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畓) 수 십 만평이 마을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복산으로 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2) 해담마을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깊은 계곡과 푸른 숲을 끼고 있는 농촌마을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인진숙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양양군 최초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서림리 마을휴양지에서는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모여 즐겁고 건강한 여름 피서를 보내는 곳, 바로 자연 속 건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짚풀공예 만들기, 돌탑쌓기, 뗏목타기, 은어, 산천어 맨손잡기, 아르고[ARGRO] 등 고향의 향기와 해담마을만의 이색적인 체험이 있다.

#### (3) 금풀애마을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의 상류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 마을은 송이가 나고 은어, 산천어가 노니는 자연이 숨쉬는 농촌마을로 여름이면 계곡물이, 가을이면 송이체험이 이뤄지는 농촌생활 체험마을이다. 양양송이는 산림청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될 만큼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송이의 주생산지가 바로 원일전리가 위치한 현북면 일대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송이는 매년 국내외 송이 애호가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금풀애마을 축제

지난 200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다리가 끊어지고 논두렁이 쓸려나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교각을 복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한 결과 마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처음으로 마을축제인 제1회 금풀애마을 들꽃축제를 개최하였다.

#### (4) 석교리마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설악산 대청봉 아래 첫 마을로 넓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마을 앞으로는 넓은 평야가 있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설악산 자락이 굽이굽이 펼쳐지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며, 계곡과 마을 주변으로 송림이 우거져 아름답다. 송림과 송림사이 한옥과 새로 지은 아담하고 예쁜 별장 같은 집들이 나즈막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뤄 설악산 아래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마을 입구에는 효성 지극한 현모양처의 정신을 기리는 ‘경주이씨효열각’이 있다. 마을에서 좀 더 오르면 진전사지 등이 있어 전통문화와 정신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상류에는 둔전저수지가 있으며, 300여 년 전부터 대문터라 칭하다가 조선후기 행정구역 개정시 노고천에 큰 돌다리가 있어 석교리라 하였다.

#### (5) 남애어촌체험마을

양양군 현남면 남애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며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 하얀색 등대가 명물이 되어 항구의 운치를 더해주는 마을이다. 해안에 즐비하게 놓여진 바위섬과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 섬마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해송, 섬 안으로 크고 적은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는 모습과 항구 밖으로는 3개의 해수욕장이 멀리서 보면 지중해의 어느 해변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이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호텔리어>, <그 여자> 등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항구에 정박한 어선들과 귀항을 서두르는 어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며 영동고속도로 현남 인터체인지와 가장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선상일출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일출명소이다.

### (6) 동호리마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양양국제공항이 있으며 청정 하천인 남대천과 인접하여 휴양과 교통의 중심마을로 7번국도와 인접해 있다. 해수욕장이 유명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동호리멸치후리기체험

와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관광객유입 및 마을 홍보를 위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멸치후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마을축제를 양양송이축제와 연계(漣繫)하여 개최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는 해산물과 섭을 이용한 횃집이 들어서 있고 낙산 및 양양의 배후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에 맞춰 펜션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을이다.

### (7) 학포리마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바다에서 1km 안쪽으로 들어서있는 곳으로 흰 학이 많이 모여드는 강어귀[개]라는 뜻을 지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 고즈넉한 갈대숲의 쌍호, 마을을 감싸는 울창한 송림과 대나무 숲, 야트막한 골짜기를 따라 옹기종기 들어선 마을, 학이 날개로 품은 마을처럼 아늑한 농촌이다. 마을에는 상업적인 숙박 시설이나 위락시설, 유원지, 음식점이 없다. 도시화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청정한 자연환경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농촌마을이다. 학이 모여든다는 뜻을 지닌 학포리 마을의 남쪽에 지명의 뜻과 상통하듯 영동지역의 항공 관문인 양양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어귀에 해당하는 쌍호(동해안 석호의 하나) 일대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된 오산리선사유적으로 8천 년 전인 신석기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오산리선사박물관에서 남한 최고의 신석기 유적을 만날 수 있다.

### (8) 포매리마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로와 왜가리가 머무는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로 『양양 해뜨미(米)』 등 친환경 유기농쌀을 재배하는 최고의 자연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포매리마을 친환경농법연구회에서는 청정 환경을 밑거름삼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 생산된 친환경쌀은 전환기유기농 품질인증(제11-18-2-01호)까지 받았으며 한살림과 농협 등에 납품하고 있다. 친환경 3無농법(무농약·무제초제·무화학비료) 실천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농업환경을 지켜가고 있다.

## 4) 해변(해수욕장)

양양군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자연환경의 여건에 맞추어 크게 농촌권역 산촌권역 해안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활행태 및 문화 또한 권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해 왔다. 특성상 해안선이 크게 발달하여 육지부와 도서부를 포함 총 44.5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해안선을 따라 어촌이 형성되고 어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어촌과 어촌사이에 형성된 해안선을 따라 청정한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다. 초창기 단순한 어업에 생계를 의지하던 어민들은 교통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자 해안 백사장을 이용한 해변(해수욕장)을 지정·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말 현재 시범해수욕장 1개소, 일반해수욕장 5개소, 마을단위해수욕장 13개소 등 총 19개소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다. 해수욕장운영 해안선은 8,395m, 운영면적은 653,200㎡, 수용인원은 245,000명에 이른다.

〈표1-4〉 해변(해수욕장) 현황

구분	해변명	위치	해안선(m)	면적(㎡)	수용인원(명)
계	19개소		8,395	653,200	245,000
시범(1)	낙산	조산, 전진1, 주청, 조산	1,810	162,900	100,000
일반(5)	설악	전진2리, 용호리	445	35,600	10,000
	하조대	현북 하광정리	450	31,500	20,000
	오산	손양면 오산리	700	70,000	18,000
	남애3	현남면 남애3리	340	24,500	6,000
	지경	현남면 지경리	500	50,000	13,000

구분	해변명	위치	해안선(m)	면적(m <sup>2</sup> )	수용인원(명)
마을(13)	물치	강현면 물치리	200	10,000	3,000
	정암	강현면 정암1리	400	24,000	6,000
	동호	손양면 동호리	400	27,000	7,000
	38(구 기사문)	현북면 기사문리	150	10,000	3,000
	잔교	현북면 잔교리	500	30,000	8,000
	동산	현남면 동산리	150	9,000	3,000
	동산포	현남면 동산리	190	11,400	3,000
	죽도	현남면 두창시변	200	14,000	8,000
	인구	현남면 인구1리	300	24,000	6,000
	광진	현남면 광진리	560	65,300	16,000
	갯마을	현남면 남애3리	250	10,000	3,000
	남애1	현남면 남애1리	600	30,000	8,000
	원포	현남면 원포리	250	14,000	4,000

자료 :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 (1) 낙산해변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주청리,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여름 전국 각지에서 100만 인파가 다녀가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에 하나로 백사장의 길이가 1,810m에 달하며 수심은 70m 앞바다까지 1.5m 내외이므로 안전하여 1963년 개장한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주변에는 뽕뽕이 들어선 송림이 많고 편의시설들이 많아 젊은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곳으로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파라세일(Parasail)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천년고찰 낙산사가 인근에 있어 문화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낙산사 의상대에서 맞이하는 일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낙산해변의 피서인파

### (2) 하조대 해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난히 바다 빛깔이 파란 하조대해수욕장은 인근에 어성전, 범수치계곡 등이 있어 바다와 산간계곡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다에서 조업하는 고기잡이배를 보며 싱싱한 활어회도 맛 볼 수 있다. 또한 20분 정도 거리에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어성전 탁장사마을이 수려한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방학을 이용한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텐트 야영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하조대정자각, 기사문항, 어성전계곡, 범수치계곡 등이 있다.



하조대해변 전경

### (3) 설악해변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전진2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에서 북쪽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번국도와 접해있어 연중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설악산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 활어판매장이 있어 연중 싱싱한 활어회를 먹을 수 있으며, 해안선 길이와 폭이 적당하여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제격이다. 텐트야영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진전사, 둔전계곡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관광 코스로도 좋다.

### (4) 오산리해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드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숲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백사장 내 텐트야영이 가능해 가족단위 여행지로 좋으며, 인근에는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2006년 개관해 운영되고 있고, 쓸비치 콘도·호텔, 골든비치, 낙산비치 등 중·대형 고급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사철 자연산회를 맛보기 위해 찾는 일반 해변이다.

### (5) 지경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 현남IC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강릉시와 경계지역으로 최근 남해~지경간 해안도로 개설로 주변경관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되어 해안가 드라이브코스로 좋으며, 울창한 송림이 있어 따가운 여름철 햇빛도 피하고, 야영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다.

### (6) 남해3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남해3리에 위치하고 있다. 희고 깨끗한 백사장과 마을 내 민박이 많아 가족단위 피서객이 애용하는 곳으로 남해항과 접하고 있어 싱싱한 활어회와 배낚시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최근 신축한 민박촌이 형성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남해3리해변 전경

### (7) 물치리 해변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군의 북쪽 끝 물치리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7번국도에 접해있으며, 활어센터가 접해 있어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고, 방파제에는 최근 여러 방송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양양군의 명품인 송이를 형상화한 등대가 예쁜 모습으로 서 있어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2009년 말에는 물치어촌계와 마을회 주관으로 도루묵을 테마로 한 제1회 도루묵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 (8) 동호리 해변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민박요금예고제를 실시하는 마을로 민박요금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날씨가 좋은 날은 옛 조상들이 고기 잡던 방식인 멸치후리기에도 무료로 참가하여 잡은 생선을 가져갈 수 있어 맛있는 매운탕도 직접 해먹을 수 있다. 동네에서는 감자채

힘도 가능해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며, 인근에는 양양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 낙산사, 하조대 등이 있다.

#### (9) 정암리해변

양양군 강현면 정암1리에 위치하고 있다. 설악해수욕장을 막 지나면 시원스러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면적이 작아 야영은 불가능하지만 경치가 아름다워 지나는 이의 발길을 잡기에 충분한 곳이다. 인근에 2009년 개관한 코레일연수원과 숙박시설, 카페 등이 들어서 있어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암리해변 전경

#### (10) 기사문리해변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위치하고 있다. 38° 선 휴게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경계철조망이 없어 시원스런 바다를 구경할 수 있고 연접한 기사문항의 싱싱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인근에는 하조대, 어성전계곡, 법수치계곡 등이 있다.

#### (11) 잔교리해변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아담하고 주변에 숙박업소 및 상가가 없어서 심하게 북적이지 않는 곳이다. 물이 맑고 백사장 뒤로는 송림이 발달되어 소나무 숲 속에서 피서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12) 동산리해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산항이 연접해 있어 활어회 등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 7번국도상에 접해 있어 맑은 물과 백사장을 좋아하는 피서객들이 주로 찾고 있다.

**(13) 동산포 해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경관조성 및 휴게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해안철조망이 없어져 탁트인 바다와 정면으로는 죽도를 바라 볼 수 있어 경관이 좋다. 항구 내에 횃집이 있어 싱싱한 회도 먹을 수 있고 죽도까지 산책코스로도 좋다.

**(14) 죽도해변**

양양군 현남면 두창시변리에 위치하고 있다. 죽도해수욕장 옆에는 예전에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둘레 1km, 높이 53m의 죽도가 있는데 정상에는 죽도정이 있어서 바다풍경을 둘러보기에 좋고 일출 또한 아름답다. 피서철에 맞추어 마을주민 모두가 ‘죽도의 연인 여린 모래톱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피서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 받고 있다.

**(15) 인구리해변**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유명한 곳으로 백사장이 넓고 조용하며, 해안 철조망이 없고 해안 포장도로가 나 있어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죽도 및 동산항과 연접해 있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죽도봉에 올라 바라보는 동해바다는 장관이다.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아 이용에 편리하며 백사장 내에서 야영도 가능하다.

**(16) 광진리해변**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담한 해수욕장이다. 인근에 휴휴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부처형상을 한 바위가 있어 최근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으로 죽도가 바라보이며, 인근에는 동산항, 남애항, 포매호가 위치하고 있다. 포매호 주변은 백로, 왜가리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17) 갯마을해변**

양양군 현남면 남애3리와 광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민박요금에

고제를 운영하는 해수욕장으로 최근 신축한 민박가구가 밀집해있어 깨끗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다. 인근에는 남애항, 포매호, 죽도 등이 있다.

#### (18) 남애1리해변

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지경~남애간 해안도로가 신설되면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해 해안철조망이 없어 시원하고 탁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한 남애항의 활어, 해안도로의 드라이브 등이 좋다.

#### (19) 원포리해변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설된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해안철조망 없이 시원하고 탁트인 바다와 깨끗하고 맑은 물이 좋다. 특히 해저 1,032m에서 취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심층수 전문제조업체인 (주)워터비스가 위치해 있다. 송림이 있어 피서에 제격이며, 인근에는 맛집과 남애항 등이 있어 먹거리를 해결하기도 좋으며, 남애1리, 지경해수욕장 등도 볼 수 있어 좋다. 피서철에 마을단위 축제도 열린다.

### 5) 항구·하천·계곡·폭포

양양군은 백두대간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형성됨으로써 산지가 많고 형성된 하천은 우리나라의 내륙보다 하천연장이 짧고 급경사를 이룬다. 따라서 양양군의 대표적 하천인 남대천의 경우 본류와 지류를 따라 계곡과 폭포가 잘 발달하고 형성돼 있다. 또한 남대천 상류의 어성전 측과 구룡령방면 오색방면의 하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과 폭포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관이 수려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휴식과 관광을 즐기고 있다. 아울러 잘 발달된 해안선을 따라서는 크고 작은 항구가 마을을 따라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어 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

### (1) 기사문항

양양군 현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내외부락이었는데 내부락의 이름은 초진, 외부락의 이름은 기사진(奇沙津)이므로 기사라 명칭하였다. 마을해변 모래사장을 걸으면 뽕드득하고 걷는 소리가 들려 세칭 명사라고도 불렀는데 근래 행정구획 변경시 기사문리라 개칭되었다. 깨끗한 백사장과 파란 바닷물이 유혹하는 이곳에 항포구가 있어 갯잡아 올린 수산물은 물론 어민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어촌체험과 낚시배를 타고 나가는 배낚시, 방파제에서의 바다낚시 체험이 가능하다.

### (2) 물치항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항구로써 해안선을 눈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인근 물치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저렴하고 싱싱한 활어회 맛을 느낄 수 있는 회센터가 있으며 물치항을 알리는 쌍둥이 등대가 물치항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한다.



물치항 전경

### (3) 수산항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1992년 방파제공사가 시작되어 2002년 완공된 이후 양양지역의 거점 어항 역할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큰 방파제와 작은 방파제로 넓게 둘러싸여져 있는 어촌어항이다.

큰 방파제의 길이는 약 585m로 영문자 Y를 우측으로 눕혀놓은 모양이며 작은 방파제의 길이는 약 240m이다. 양양권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방파제이다. 주요어종으로는 가자미, 넙치, 도루묵이 주로 많고 계절에 따라 봄철에는 감성돔과 임연수어, 여름철에는 가자미, 가을철에는 노래미와 학꽂치,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서식한다.

이곳이 길고 긴 방파제와 등대를 배경으로 한 일출장소로 양양의 포구 중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양양의 포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최근에는 수산항내에 요트마리나 계류시설(푼톤)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2010년도에는 제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하였다. 요트대회 당시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관계자들로부터 설악산과 백두대간 등 아름다운 주변 자연경관과 알맞은 바람 등 최적의 요트대회 여건을 갖추었다는 평가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기대해도 좋다.

#### (4) 어성전리계곡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발원한 계곡물은 강릉시 부연동과 양양군 법수치리를 지난 다음 어성전리로 모인다. 이 물은 남대천의 상류로서 양양읍내를 거쳐 동해로 흘러든다.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경치, 깨끗한 물을 구비한 어성전계곡은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뼈 속까지 시릴 정도이며, 시냇물과 계곡을 타고 오르면 양편으로 칩과 다래냉쿨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 (5) 법수치리계곡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어성전계곡에서 조금 더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법수치계곡이 나온다. 어성전계곡에 비해 폭이 좁아지고 물도 깊은 구간이 많아진다. 불가의 법문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여 법수치리라 불리며, 황어, 은어 등 맑은 물에 사는 어류들이 서식한다. 근래 이 마을에 경관과 어우러진 예쁜 펜션이 많이 생겨 아름다운 산골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 (6) 둔전리계곡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둔전리를 거쳐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맑은 물줄기가 일품이다. 설악산 깊은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물줄기가 깨끗하고 푸른빛을 띠고 있다.

#### (7) 갈천리계곡

구룡령 아래 첫마을 갈천, 맑은 물과 푸른 숲, 갈천약수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갈천은 약초, 장뇌삼, 산삼 등을 캐는 순박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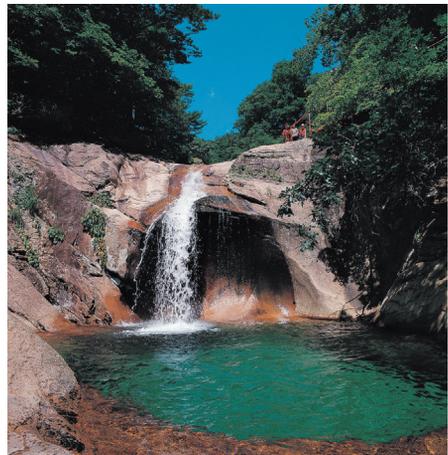
물놀이, 고기몰이하기에 좋으며, 주민들 또한 친절하여 다시 꼭 찾게 되는 곳이다. 특히 갈천약수는 부정탄 사람들이 약수터 가까이 가면 뱀이 나타나거나 약수물이 흐려져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전설과 함께 약수의 약효가 뛰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 약수터 주위에는 수많은 돌탑들이 있어 갈천계곡의 물소리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구룡령 옛길걷기 코스가 시작된다.

### (8) 공수전리계곡

조선시대 때 출장을 떠나는 관리들이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수전이라는 기관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공수전계곡으로 불린다. 좁은 골짜기를 따라 급하게 달려온 물줄기가 잠시 쉬어 가는 듯 탁 트인 자갈밭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며 넓고 평평한 소를 이룬다.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소를 품고 있는 절벽엔 노송 사이로 툭툭 빠져나온 기암괴석들이 절경을 빚어낸다. 더운 여름 쉼 곳을 찾는 이들에게 일상의 피로를 말끔하게 없애준다.

### (9) 용소폭포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위치하고 있다. 용이 되려다 못된 암늪 이무기는 폭포 옆에 붙은 용머리와 용발자국 모양이 생긴 바위가 되었고 용꼬리는 폭포가 되었다고 한다. 이 폭포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웅장한 물줄기가 낙하하여 만들어진 용궁이 장관이다.



용소폭포

### (10) 백암폭포

백암폭포는 말 그대로 백색의 기암 사이로 흐르는 계곡이 절경을 이룬다. 폭포의 높이는 30m이고 폭포 바위 밑에 20여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굴이 있어 그 백암폭포 안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끼며 맑은 날 오전에는 무지개 현상을 볼 수 있다. 근처 백암골에 너런 바위, 너런바위폭포, 멧돌바위 등이 있다.

(11) 옥녀폭포

점봉산에서 시작되어 내려오고 있다. 약수터에서는 3km 거리에 있다. 폭포는 상·하 단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약 40m이며 여성의 아름다움에 비유할 정도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 이 폭포는 400여 년 전 이지역의 유명한 옥녀라는 효녀미인의 자태를 닮았다하여 옥녀폭포라 불렸고, 특징은 2단 폭포로 약 42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아담한 폭포다.

(12) 치마폭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건너편 주차장 쪽으로 500m 정도 가면 두 줄기의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탕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양과 같아 발폭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선녀들이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한 선관이 숨졌다던 치마가 이 폭포가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6)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광지

(1) 양양 5일장

영북지방의 가장 큰 시골 전통장으로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열린다. 장터 구석구석은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들이 선보이며, 가끔은 희귀한 특산물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 오랜 세월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양양 5일장 전경

주요품목으로는 각종채소, 해산물, 농산물, 버섯류, 농기구류 등이며, 인기품목으로는 무공해 채소류, 산나물, 더덕, 돌김, 미역, 농기구류 등이 있다. 장터토속음식으로는 가시리묵, 장칼국수, 뚜거리탕, 섭국, 송천떡 등이 있다.

## (2) 송천떡마을

설악산과 점봉산 자락에 묻혀 있는 고향 내음으로 발길이 머무는 곳 송천떡마을은 한쪽으로는 송천계곡 물줄기가 길게 흐르고 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마을로 전체 30여 가구 중 15가구가 떡을 만든다. 기계떡이 아니라 찹쌀을 시



송천떡마을 체험

루에 얹어 장작불로 찌고 떡메로 쳐서 손으로 빻어내는 떡이다. 떡메로 쳐서 만들기 때문에 떡이 쫄깃하고 말랑말랑하다. 쌀은 마을에서 농사지은 것을 사용하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오색약수에서 흘러내린 물을 논물로 이용하므로 품질이 우수하다. 떡을 반죽할 때는 기름이나 물을 쓰지 않고 꿀을 내리고 난 벌집을 사용한다. 떡은 인절미와 계피떡, 바람떡, 송편, 백설기, 호박고지, 찹쌀떡, 가래떡, 경단 등 다양하게 만든다. 가장 주문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절미인데, 반은 흰색 인절미로, 나머지 반은 취나물과 쑥을 섞어 만든다. 20여 년 전부터 떡을 빻어온 마을에서는 떡만드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떡빻기 행사도 개최한다. 겨울 설경이 아름다우며 까치구멍이 그대로 보존된 옛날 부엌도 볼 수 있다.

주변에 낙산사, 낙산도립공원, 신흥사, 미천골자연휴양림, 오색약수, 선림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시 현지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3) 양양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의 한곳이다. 유적지는 동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석호'라고 불리는 호숫가의 모래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언덕을 파서 이 호수를 매립하던 중 발견되어, 198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하여 14기의 원형집터와 소할석 및 돌무지 유구, 다양한 석기와 토기를 발굴하였다. 특히 흙으로 만든 인면상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상징한 예술품으로

희귀한 예로 일컬어진다. 또한 출토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산리 유적지가 B.C.6000년경의 유적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 중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어 사적 394호로 지정되었다. 양양군에서는 오산리 신석기 유적들을 소개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6일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건축면적 3,194㎡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크게 도입부와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소개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부에는 종합안내소와 PC를 통하여 박물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너, 로비의 전망창을 통하여 야외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및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선사시대 유적 관람을 준비하며 현실에서 선사시대로 시간 이동을 유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에는 쌍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신석기시대 사람들, 그들의 어로생활, 토기를 만드는 모습, 움집 주변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사냥한 멧돼지와 어패류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롯한 주거생활 등이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다.

강원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담은 전시실은 각종 어로기구와 돌칼, 돌화살, 돌도끼, 토기와 청동기 제작법 등 오산리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변에 오산해수욕장·동호리해수욕장·수산항·연어생태학교[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일현미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

#### (4) 탁장사마을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산나물로 밥을 하고, 고기 잡아 배불리 먹으며, 천년의 송이향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눈썰매도 타볼 수 있는 전통테마마을이다.

조선말, 커다란 나무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있었다. 강릉의 권장사가 실패하고 양양의 탁장사가 이겼다고 한다. 양양으로 나무를 지고 온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잔치가 열린다하여 탁장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통나무 자르기놀이, 지게지기, 목도놀이, 강강술래 등 놀이체험이 가능하다.

주변관광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畓)수십 만 평이 마을 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복산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매년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도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5) 곤충생태관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곤충박물관으로 건물외벽에 커다란 장수풍뎅이와 시슴벌레의 모형이 걸려있어 관광객들 특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곳이다. 2층 내부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희귀한 곤충의 표본과 색색의 나비들이 어린이들의 눈을 잡아끈다. 1,200여 종의 곤충과 나비표본, 수서곤충, 갑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고 살아있는 곤충의 성장과정과 생태도 관찰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생명체로서의 곤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이다. 1층은 양양관광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낙산관광안내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연중무휴이며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소인 700원을 받고 있다. 주차는 무료이다.

2008년 10월 1일 개관이후 2009년 12월말 현재 총 관람객수는 43,478명이며 이중 유료관람객 33,853명, 무료관광객은 9,625명이다.

#### (6)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24-1번지에 소재한 연어생태학교이다. 남대천가에 위치해 있어 태평양에서 돌아온 연어를 직접 포획하기도 하고 알을 채란하여 인공수정 및 부화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곳이며, 성어가 된 연어를 방류하는 곳이다. 전시관에는 연어의 일생과 생태 등이 사진과 그래픽 패널, 연어 표본 등을 관람할 수 있고, 10월~11월 연어축제가 개최 될 때에는 인공수정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무지개송어, 산천어 등 일반담수어양식장도 있어 어린이들에게 좋은 자연현장체험학습장이 되고 있다. 연어전시실은 연중 견학이 가능하다.

### (7) 양양양수발전소(양양에너지월드)

‘양양양수발전소’는 2006년 9월 12일에 준공되었다. 양양양수발전소 1~4호기는 국내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100만kw(25만kw, 4기)로 연간 약 7억kwh의 전기를 생산 공급한다. (주)삼안이 설계를 두산중공업(주)가 기자재공급, 삼환기업(주), 삼성물산(주)가 시공을 담당하였으며, 1996년 9월에 착공한 이후 총 공사비 1조 1,000억원과 연인원 170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10년 만에 완공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이 건설한 양양양수발전소는 상부댐과 하부댐의 낙차가 819m로 동양 최대를 자랑하며 하부댐에는 대형댐으로는 처음으로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기간 중에 양양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을 종합회관 건립,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관 건립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약 26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양수발전의 원리와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리를 체험 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 1일 ‘양양에너지월드’를 개관하게 되었다. 양양에너지월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양양양수발전소의 홍보 전시관으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Zone(양수발전소 소개)’, ‘빛의 놀이터 Zone(에너지 체험)’, ‘빛의 중심 Zone(중부발전 소개)’ 등의 전시관과 600인치 대형 스크린을 갖춘 3D입체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밖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갖춰져 있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한다. ‘양양양수발전소’ 및 ‘양양에너지월드’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8) 멕시코문물전시관

서면 오색리에 위치한 오색그린야드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멕시코문물전시관’은 2009년 12월 3일 문을 열었다. 멕시코의 다양한 문물이 전시된 박물관은 아메리카 문명의 시원인 올멕(OLMEC),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야(MAYA), 아메리카 인디언의 고대문명인 아즈텍(AZTEC) 등 크게 3가지 문물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아메리

카 고대 문명 중 가장 오래된 올멕 문물 전시관에는 톨텍 사포텍토문화 문물 등이 전시돼 있으며, 마야문물 전시관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의 거대 신전을 건축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을 숭배하는 등 다양한 마야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5세기부터 16세기 초 스페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한 아즈텍 제국의 전시관에는 아즈텍인들의 성 생활관과 성모 발현지 전시관이 따로 마련돼 있는 등 멕시코문물의 이색적인 향기를 설악 오색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3번째로 큰 나라로 이 문화들은 AD 100~900년에 올멕·톨텍·마야·아즈텍문화로 꽃피었다. 화려하게 수놓인 면으로 만든 의상, 면이나 모로 만든 솔(rebozos)과 겹옷(serapes), 색색가지의 바구니와 짚개 등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 올멕(OLMEC)문명(B.C.1200~400년) : 약 3천년전, 중미 해안지방에서 존재했다. 올멕의 뛰어난 문명은 엄청난 예술적 수준의 거석 조각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문명은 수백년간 번성하다 기원전 400년경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고대 폐허로 남아 거대한 의혹을 던지고 있다.
- 마야(MAYA)문명(A.D.100~600년) : 중앙아메리카 케추아족이 세운 고대문명으로 신정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의 거대 신전을 건축하고 태양신과 달의 신을 숭배했다. 천체관측법과 역법이 매우 발달하였고, 마야숫자가 유명하다.
- 아즈텍(AZTEC)문명(A.D.1200~1522년) : 15세기부터 16세기 초 스페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하였다. 아즈텍인들은 현재의 세계 이전에 4개의 세계가 있었으며 이번 5번째 세계에서는 태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피와 심장을 부단히 공양해야 한다고 믿었다.

## 7) 레저

### (1) 대청봉 등산

설악산 대청봉은 우리나라에서 셋째로 높은 봉으로 천불동 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 대부분의 계곡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대청봉은 동해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한 야간산행과 겨울 눈산행으로 인기가 있다.

※ 등산코스

○ 오색 산행기점 코스

- 1코스(18km, 8시간 소요) : 오색 → 설악폭포 → 대청봉 → 소청봉 → 희운각 → 천불동계곡 → 양폭산장 → 귀면암 → 비선대 → 설악동
- 2코스(21km, 11시간 소요) : 오색 → 설악폭포 → 대청봉 → 소청봉 → 봉정암 → 구곡담계곡 → 수렴동대피소 → 영시암 → 백담사 → 백담사 경내버스 승차장

○ 오색령

- 1코스(21km, 11시간 소요) : 오색령 → 서북릉 → 끝청 → 중청 → 대청봉 → 희운각 → 양폭산장 → 귀면암 → 비선대 → 설악동
- 2코스(18km, 8시간 소요) : 오색령 → 서북릉 → 끝청 → 중청 → 대청봉 → 설악폭포 → 오색약수터

### (2) 점봉산 등산

점봉산은 설악산국립공원 중 남설악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을 오르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등산로는 약수터와 온천이 있는 오색에서 시작하고 정상에 오르면 대청봉·가리봉 등 설악산의 영봉과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행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 등산코스

- 1코스(6시간 소요) : 오색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전골 → 고개 → 망대암산 → 점봉산 → 흥포수막터 → 안터 → 민박촌
- 2코스(3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등선폭포 → 흘림골 → 차도
- 3코스(10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십이담계곡 → 망대암산 → 안부 → 망대암산 → 점봉산 → 흥포수막터 → 오색집단 거주지(민박촌)
- 4코스(12시간 소요) : 오색약수 → 망대암산 → 점봉산 → 단목령 → 오색국교
- 5코스(5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십이폭포 → 주전폭포 → 등선폭포 → 여신폭포 → 흘림골

※ 점봉산 높이 1,424m 인제군과 양양군 서면에 걸쳐있는 산, 오색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보고 있다. 북동쪽에 대청봉(1,708m)이 있고, 북서쪽에 가리봉 (1,519m), 남서쪽에 가칠봉(1,165m) 등이 솟아 있다. 산의 동쪽 비탈면을 흘러내리는 물은 주전골을 이루어 오색약수를 지나 백암천에 합류한 뒤 양양의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산자락에 12담계 · 큰고래골 · 오색약수터 · 망월사 · 오색석사터 등 명소가 많으며, 오색약수를 거쳐 오르는 주전골은 단풍 명소로써 흰 암반 위를 흐르는 계곡물과 단풍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낸다. 산일대에 펼쳐진 원시림에는 젓나무가 울창하고, 모데미풀 등 갖가지 희귀식물을 비롯하여 참나무 · 곰취 · 곤드레 · 고비 · 참취 등 10여 가지 산나물이 자생한다. 특히 한반도 자생식물의 남북방한계선이 맞닿은 곳으로써 한반도 자생종의 20%에 해당하는 8백 54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 (3) 망대암산 등산

인제와 양양군 서면과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234m, 북동쪽의 대청봉, 남쪽의 점봉산, 남서쪽의 시선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청봉 서남쪽의 오색령은 남쪽 대관령과 함께 영동 · 영서간 교통의 요로이며, 북동쪽에는 오색약수 · 오색온천이 있어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산은 정상이 침봉이고 망대암과 금표암 등 기암괴석으로 덮여 있다.

#### ※ 등산코스

- 1코스(6시간 소요) : 오색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전골 → 고개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안터 → 민박촌
- 2코스(10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십이담계곡 → 망대암산 → 안부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오색집단 거주지(민박촌)

### (4) 구룡령옛길 걷기

이 길은 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옛길로 산세가 험한 진부령, 미시령, 오색령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양양, 고성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갈 때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상품 교역로였고 양양, 고성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한양으로 갈 때 명칭에서 유래하듯 용의 영험함을 빗대어 과거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던 길이라 하며, 구룡령이라는 이름은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 가다가 지쳐서 갈천리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고갯길을 넘어갔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고 있다. 옛길 입구에는 굽이쳐 흐르는 계곡이 있고, 길의 중간 중간에 길의 위치를 표시하는 횃돌반쟁이, 묘반쟁이, 솔반쟁이 등이 자리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옛길 걷기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구룡령옛길에는 옛 철기시대 양양지역에 공급되던 철을 캐던 동굴과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어 일대 주민들이 강제 징집되었던 애환의 역사가 서린 철광소, 케이블카가 남아있고, 옛길 길가에는 1989년 경복궁 복원 당시 사용되어 밑동만 남아 있는 소나무 거목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조선시대와 근현대사의 역사가 함께 잔존하여 역사적 가치가 큰 소중한 명승지이다. 옛길 따라 펼쳐진 200~300년 된 희귀한 금강소 나무가 장관이며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정할 때 양양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려고 달리다가 숨진 청년이 묻혔다는 전설의 묘(명승 제29호)도 있다.

※ 옛길 5km 걷기

- 옛길 들머리 입구(구 갈천분교) → 계곡 → 금강소나무길 → 서림철광소 → 케이블카 → 구룡령정상  
→ 홍천군 내면 명개리

### (5) 드라이브·하이킹

마의태자의 피눈물이 어린 오색령과 바닷가를 따라가는 7번국도는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오색령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때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김취려 장군이 뒤쫓아 이 골짜기에서 섬멸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오색령은 험하지만 깊고, 아찔하지만 수려하다. 서울에서 국도로 오면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가면서 좌우로 내설악과 남설악의 진풍을 만날 수 있다. 동해안 드라이브는 산길 드라이브와 해안가 드라이브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의 절경이 펼쳐지고 작은 어촌마을의 소박한 운치, 넘실대는 파도가 정겹다. 왼쪽으로는 멀리 병풍처럼 둘러싼 설악산이 눈에 들어온다. 굽이굽이 고개를 돌 때마다 달리보이는 설악산을 보는 재미가 있다.

양양은 자전거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동안 육성한 사이클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커다란 족적을 만들어왔다. 이와 함께 양양의 수려한 산·계곡·하천·해안은 자연스럽게 하이킹하기에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최근에는 생활여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드라이브·

하이킹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 코스

○ 드라이브 코스

- 남쪽 현남IC부터 지경해수욕장 → 원포해수욕장 → 갯마을 해수욕장 → 남애해수욕장 → 하조대 → 일현미술관 → 오산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대명솔비치 → 오산해수욕장 → 남대천하구 → 낙산해수욕장 → 낙산사 → 물치항

○ 자전거 하이킹 코스

- 1코스(해안도로) : 지경해수욕장 → 원포해수욕장 → 갯마을해수욕장 → 남애해수욕장
- 2코스(해안도로) : 하조대 → 일현미술관 → 오산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대명솔비치 → 오산해수욕장 → 남대천하구 연어생태박물관
- 3코스(56번국도) : 양양시내 → 송천떡마을 → 양수발전소 → 서림사지 → 선림원지 → 미천골자연휴양림 → 불바라기약수 → 법수치계곡(면옥치리) → 여성전계곡(명주사입구) → 하조대

## (6) 배낚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이와 맞물려 휴식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면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양양군에서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하게 되었다. 이중 하나가 바다낚시이다. 바다낚시의 매력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에 몸을 맡긴 채 고기가 입질하는 순간의 짜릿함과 출렁이는 파도와 짹짹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펄펄 뛰는 물고기를 즉석에서 손질해 보고 회를 맛보는 것이다. 배낚시로 낚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은 우럭 · 가자미 · 광어 · 꽁치 · 방어 · 대구 · 노래미 · 조피볼락 등이며, 배낚시가 가능한 양양의 항구는 기사문항 · 남애항 · 물치항 · 수산항 · 오산항 · 인구항 · 낙산항(전진항) 등이다.

배낚시는 1회 약 2시간정도 소요되며, 계절별로 잡히는 어종은, 봄에는 송어 · 우럭 · 돔, 여름에는 고등어 · 돔, 가을에는 우럭 · 이면수 · 학꽁치, 겨울에는 돔 · 황어 · 놀래미 정도다. 최근에는 배낚시 이외에도 계절별로 갯바위 및 방파제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 4. 연도별 관광객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등이 전국적인 유명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양양의 관광브랜드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양양군의 관광객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이유는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과 관광매력물 창출이 부족하고 타 시군들의 공격적인 관광마케팅과 관광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광객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표1-5〉연도별 관광객 현황

연 별	집계 관광지수	방 문 객 수		
		계	내 국 인	외 국 인
1998	1	1,389,626	1,371,274	18,352
1999	1	2,709,324	2,572,929	136,395
2000	1	3,260,813	3,245,595	15,218
2001	1	4,158,098	4,119,495	38,603
2002	1	5,790,240	5,738,755	51,485
2003	1	7,298,178	7,181,061	117,117
2004	1	7,840,907	7,722,939	117,968
2005	1	7,951,812	7,902,066	49,746
2006	21	1,818,634	1,777,532	41,102
2007	21	1,666,418	1,628,686	37,732
2008	22	5,503,566	5,351,623	151,943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년 제47회

#### 5. 특산품

양양은 산과 바다에 접해 있고 기후가 좋아 품질 좋고 맛있는 임해산물이 풍부하다. 송이를 비롯해 낙산배, 한우, 토종꿀은 양양의 자랑거리이다. 이러한 특산품은 관광 상품화 등 지역의 소득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1-6〉 특산품 현황

품명	설명	비고
양양송이	-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1호 등록 - 백두대간 수십 년 된 소나무(적송) 아래에서만 자라는 양양황금송이는 타지역에 비해 육질이 두텁고 수분함량이 낮아 단단하다. 고유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본에서 세계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다.	-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 양양송이협회
표고버섯	- 천혜의 지형을 이용한 표고버섯 - 영동지방의 독특한 기후의 영향으로 수확철에 부는 해풍과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어 우수한 화고 형성율을 자랑한다. 육질이 두껍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	- 양양군표고버섯연구모임회
양양한우	- 강원도 청정지역 설악산 자락에서 사육되는 한우 -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양양한우사육프로그램에 의한 차별화된 품질개량으로 불포화지방산이 높은 명품제품이다. 동해안의 해양성 기후로 인해 육질에서 감칠맛이 느껴지며, 특산물인 자연산 송이와 곁들이면 그 맛이 더욱 일품이다.	- 속초양양축협
느타리버섯	- 오색의 정기와 맑은 물로 자란 설악느타리버섯 - 육질이 두껍고 풍미가 강하며 비만 및 골다공증 예방과 고혈압 개선효과,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 설악산느타리버섯영농조합법인
복숭아	- 달콤 아삭 당도 높은 복숭아 - 해양성 기후로 인해 수확기 일교차가 커서 복숭아의 당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용천리 복숭아마을에서는 복숭아 따는 철이면 “은어야 복숭아 따라가자 ~” 축제가 열려 복숭아도 직접 따고 은어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양양군복숭아연구모임회
양양쌀(해뜨미)	- 이른 아침해살과 해풍을 맞고 자란 쌀 해뜨미 - 양양에서 저농약재배에 남대천 맑은 물과 동해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우수한 미질로 밥이 찰지고 구수한 친환경 명품 쌀이다.	- 양양지역농협
토종·양봉꿀	- 청정지역의 다양한 밀원식물에서 생산된 토종, 양봉꿀 - 전국 제일의 원시림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꿀은 양양군에서 입회하여 밀봉하고 군에서 봉인하는 품질이 보증된 제품으로 맛이 진하고 몸에 좋다.	- 양양군재래양봉영농조합법인
송이주	- 산송이 그윽한 술, 송이 발효주 - 송이주는 자연산 송이를 배합, 저온 자기발효 숙성시켜 저도수에 숙취가 없는 깨끗한 술이다.	- 양양민속도가
송이찬·다과세트	- 송이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개발 - 질 좋은 원재료 사용으로 인해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송이 식품을 수출함.	- 일송영농조합법인

품명	설명	비고
송이 고추장 · 된장	- 100% 국산원료와 오색의 맑은 물로 담근 오색옹기장식품 - 제품에 송이, 초피 등 양양지역 자생하는 특산품을 첨가한 제품이다.	- 오색옹기장식품
양양 오색한과	- 설악산의 맑은 물과 옛 조산들의 전통방식을 고수한 10년 역사의 전통 한과 전문업체이다.	- 양양오색한과
인진숙	- 남설악 등지에서 캐내어 가공한 제품으로 간에 이롭고 여성에 좋아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다.	- 서광농협
송천떡	- 고향내음으로 발길이 머무는 곳 송천떡마을 - 전통 떡매 방식으로 쫄깃한 맛이 일품이며, 직접 방문하여 떡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 송천민속떡마을

## 6. 양양군의 향토음식

### 1) 생선회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생선회는 요즘 고단백 저칼로리이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선에는 인체 구성성분으로 가장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예방 효과가 있는 EPA, 지능개발과 치매에 좋은 DHA를 가지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선회

### 2) 메기매운탕

보양식으로 자주 찾는 메기매운탕은 속에 부담이 없는 음식이다. 메기는 생김새처럼 먹성도 좋고 그만큼 영양가도 뛰어나며 겉은 겹지만 속은 부드러우며 담백하기 이를 데 없다. 예전부터 민간요법에서는 부기를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데 메기를 먹었다고 한다. 주로 봄철부터 가을까지 제철이며, 특히 3~5월에는 메기가 최상급이다.

### 3) 메밀국수

메밀은 영양가가 높으며 단백질이 다른 곡식에 비해 12~14% 많이 포함되어 있다. EH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신의 함유량도 많아서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음식이 또한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고혈압증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루틴의 함유량이 높다.



메밀국수

### 4) 산채

설악의 깊은 숲속에서 자생하는 두릅, 원추리, 취나물, 고비, 흡잎나물, 참나물, 칼나물, 곰치, 얼레지 등의 무공해 자연식품을 양념하여 그 산나물의 특유한 향을 살린 산채는 계절에 따라 채취되는 나물이 다르므로 계절별로 색다른 산채 맛을 즐길 수 있다. 설악영봉의 길목에 자리 잡은 오색지구에는 산채요리 전문점이 많은데 집집마다 전통이 매우 깊은 음식점들이 즐비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 5) 뚜거리탕

‘뚜거리’는 남대천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로 이 지역의 방언이다. 뚜거리탕은 뚜거리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손질하여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푹배기에 넣고 끓이는 영양이 많은 보양식이다. 남대천 둔치 인근에서 판매하며 구수하고 얼큰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6) 섭국

섭국은 영동북부지방의 어부들이 즐겨 먹던 토종음식이다. 칼칼한 고추장 국물에 각종 채소와 섭(홍합)을 넣고 끓인 얼큰하고 시원한 종류의 탕이다.

### 7) 송이라면, 송이칼국수

라면이나 칼국수에 송이를 넣어 끓인 음식으로 송이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게 한다.

8) 버섯전골

양양의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버섯으로 끓인 전골음식으로 양양읍내에서 먹을 수 있다.

9) 송이영양돌솥밥

돌솥에 쌀과 송이, 대추를 넣고 지은 영양밥으로 된장찌개와 곁들여 먹으면 일품이다.

10) 송이불백

한우 불고기에 양양송이를 첨가하여 살짝 끓인 샤브샤브식 음식으로 송이 향을 한껏 즐길 수 있다.

11) 송이삼계탕

삼계탕에 송이를 넣고 끓인 음식으로 닭과 송이의 궁합이 일품이다.

## 7. 관광개발계획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여가의 꾸준한 증가 및 건강을 중요시하는 국민생활패턴의 변화, 특히 국제 및 국내관광의 질·양적 변화추세에 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관광개발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원의 보호와 같이 개발대상지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과의 관계,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관광개발은 관광지의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으나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효과 이외에 사회적 측면도 생각해야 되며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관광자의 수요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해서 관광자원의 보호 및 그 지역사회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광역 교통망 및 역

내 교통체계를 활성화하여 환동해권 및 국내의 중추적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세계 관광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관광 상품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으나 양양지역은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개발하고 이에 21세기 관광패턴에 부합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설악~금강권의 효율적인 연계개발과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지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 국제회의 시설과 관광호텔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계획 시 우선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관점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테마형 관광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양식·가치관의 다원화, 국민소득의 증대 등으로 인한 관광휴양활동의 증가가 예상되고 해양휴양지, 역사·문화관광지 및 산림휴양지 등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해 해양리조트타운 조성계획

지역자원의 잠재력과 다양한 휴양시설 접목을 통해 동해안 최고의 해양형 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호, 철새도래지, 해변 등 천연 생태환경을 정비하여 다양한 자연체험과 체류가 가능한 가족형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성수기(여름 바캉스철, 가을 단풍철)를 지원하고 비수기에 효과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휴양형 집객 시설을 조성한다.

조성방법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관광휴양’이라는 지역친화형 성장 동력을 육성·추진함으로써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인프라 확충하고 나아가 민·관의 상생 모델 수립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1-7〉 남해해양리조트타운 조성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산20번지 일원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남해 해양리조트타운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9~2015년(7년간)
- 면 적 : 5,040,000㎡(약 152만평)
- 사업내용
  - 고품격 생태자연형 레저·휴양단지 조성
  - 지역친화적인 친환경 체류형 복합 휴양단지 조성
- 주요시설
  - 핵심리조트지구 : 리조트호텔, 스파파크, 컨벤션호텔, 콘도미니엄 등
  - 교육문화시설지구 : 유스호스텔, 아트센터, 조각공원, 풍력발전소 등
  - 자연환경보존지구 :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유기농재배단지, 버드파크 등
  - 주거시설지구 :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레이크, 프라이빗비치 등
  - 체육시설지구 : 골프코스(18홀), 마인레스토랑, 클럽하우스 등

## 2)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 7호선과 인접한 양양군 관문으로 개발 사업을 통한 관광양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양심층수 집적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민자사업)으로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1-8〉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양양군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해양심층수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9~2010년
- 면 적 : 46,704㎡
- 사업내용
  - 편익 및 관리시설 :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 휴양시설 : 휴게소, 해양박물관, 민속전시관, 분수대
  - 숙박시설 : 민속촌(3층 이하)

### 3) 연어산업 콘텐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사업

남대천은 국내 회귀연어의 70%가 돌아오는 최대의 연어 회귀지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교육적 가치 제고(국내 유일의 연어연구센터, 연어축제)하고 인근 레저·문화·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다양한 문화 욕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향토자원을 체계화하여 산업화가 절실하다. 남대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국토해양부·환경부)과 연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동해안의 랜드마크화하고 연어를 중심으로 1·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 〈표1-9〉 연어산업 콘텐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사업 개요

- 연어자원 증강사업
  - 연어회귀경로 파악을 위한 연구, 자원보존
  - 바다연어 수협위판, 위판액의 10%는 연어자원조성기금으로 활용
  - 어미 연어 포획 방법(유도시설, 염분침입방지)의 과학화
  - 북태평양 연어잡이 쿼터 확보 추진
  - 연어자원 확보를 위한 수출입산업 육성
- 연구사업
  - 오메가3 추출, 기능성 건강식품 연구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양식연구, 식품연구
- 연어자원 가공산업
  - 식품사업(Seafood of Salmon)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운영
  - 연어 정소사업(RNA, DNA industry) : 건강식품, 화장품, 세정제 등
  - 패션사업(Fashion of Salmon) : 패션잡화, 신발, 의류, 판촉물 등
  - 유기비료사업(Organatic fertilizer industry) : 비료, 사료 등
  - 각 사업의 일본과 비교
- 콘텐츠 사업
  - 연어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발굴·제작·활용
  - 양양군의 다른 콘텐츠와 연계하여 융합콘텐츠로 발전
  - 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 양양군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CT : culture technology) 육성
- 특구지정
  - 연어를 활용한 산업의 직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특구구성
  - 관련 산업을 조성하는데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을 완화하는 구역
  - 연어를 원천자료로 1, 2, 3 차 산업이 융·복합하는 장소적 거점 조성
  - 위치 : 손양면 가평리~송전리(남대천 하류~냉수성어류연구센터)

이와 관련된 연계사업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소도읍 사업 : 연어소상로 및 시장활성화와 연계
- 남대천 우안제방사업 : 친환경적 제방정비로 연어생태환경 조성
- 어도설치 사업 : 남대천 상류진출을 어로 확보
- 연어 산소길 조성사업 : 사람과 연어가 교감할 수 있는 산소길 조성
- 현성권역 종합개발계획 : 남대천 스토리텔링 박물관 조성

〈표1-10〉 주요사업 및 연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합계(49,271)		8,201			5,625			35,445		
합 계		10,212	550	2,005	2,480	650	2,495	17,680	8,250	9,515
자원 증강 사업	방류사업	80			80			80		
	쿼터 확대 사업	200			200			200		
	원료 확보	300		300	400		300	500		300
연구 사업	기능성제품 연구	100		100	100		100	100		100
	회귀 연구	200			200			200		
가공 사업	식품 가공	500	250	250	500	250	250	500	250	250
	가죽 가공	200	50	50	200	50	50	200	50	50
	기타 가공	300	100	200	300	150	250	300	150	250
콘텐츠 사업	공모전			30			30			50
	콘텐츠개발·유통	200	50	150	200	100	100	300	200	200
	콘텐츠 활용	300	100	100	300	100	100	300	100	100
	재산권 등록			50			50			50
	아트센터 건립						600	15,000	7,500	7,500
협력 네트 워크 사업	T/F운영			5			5			5
	자료수집			80			50			50
	기업유치			10			10			10
	포럼개최			30			30			30
	연어해설사 양성			50			50			50
특구지정, 국가사업 신청				100			20			20
연어축제				500			500			500

자료 : 양양군, 연어산업콘텐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2009

#### 4)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사업

급격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등산로 및 대청봉을 복원하고 국제적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소득 및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및 모든 국민이 설악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오색·설악권 경기침체로 인한 오색·설악권의 공동화를 해소하는데 있다.

##### 〈표1-11〉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사업 개요

- 구간 : 서면 오색리~관모능선(4.71km, 중간지주 4개)
- 삭도형식 : 자동2선식 곤돌라(8인승 이하)
- 수송능력 : 시간당 1,400명(소요 : 편도 14분 예정)
- 사업비 : 460억원(추정)
- 사업내용
  - 하부정류장 : 오색집단지식지구 내 주차장 인근 나대지
  - 상부정류장 : 국방부 지하벙커 또는 불법 야영으로 인한 기 훼손지
- ※ 상부정류장에서 전망대까지 탐방로는 환경친화형 고가마루를 시설하여 전혀 땅을 밟지 않고 탐방토록 조치(상부에는 환경오염요인 원천 배제)

#### 5) 동산향 해양레저기반시설 조성사업

동해안권 광역개발계획(동해안관광벨트)과 관현 동산향 및 죽도해수욕장 등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레저활동 중심공간으로 개발한다. 다양한 해양활동 체험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 문화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 확대 및 변화하는 관광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1-12〉 동산향 해양레저기반시설 조성사업 개요

- 위치 :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동산향 일원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동산향 해양레저기반시설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9~2018년(10년차)
- 사업규모 : 2km
- 사업비 : 11,620백만원(국비 4,910, 지방비 5,210, 민자 1,500)
- 사업내용
  - 시설확충 : 호안정비, 인공어초 투입,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확충
  - 프로그램 개발 :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바다수영대회, 교육프로그램 등

## 6) 소도읍 육성사업

쇠퇴화된 양양읍 시가지를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현대 감각에 걸맞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에 참여하였다. 전국단위 전문가들이 심사한 사업계획에 우리군이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사업의 위치는 양양읍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남대천 연어 생태공원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중심테마가로 조성, 현산 일 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371백만원(국비5,000, 지방비7,371)이며 2009~2012년 12월(4년간)까지 추진하게 된다.

## 7)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남북통일·환동해권시대의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최단거리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까지 1시간대 생활권이 형성하게 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양양지방은 지역개발의 일대 혁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1-13〉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개요

- 총 구간 : 150km(서울~춘천~양양)
  - ※ 민간투자 : 서울 ⇄ 춘천(61.4km), 정부투자 : 춘천 ⇄ 양양(88.8km)
- 사업비 : 9,501억원(인제~양양 : 22,26km)
- 주요시설 : 서림IC 1개소
- 사업기간 : 2008.12.~2015.12.(7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서울~춘천 구간(61.4km) : 2009. 7.15. 개통
  - 춘천~동홍천 구간(17.1km) : 2009.10.30. 개통
  - 동홍천~양양 구간(71.5km) : 2015년 준공예정

## 8)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여름피서·단풍철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양양국제공항·동서고속도로 등을 연결하는 물류 산업도로 역할을 담당하고자 건설하게 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맞물려 시너지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1-14〉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개요

- 총연장(삼척~고성) : 146.6km (주문진~속초 : 44.32km)  
※ 44.32km = 35.3km(관내구간) + 9.02km(속초일부구간)
- 사업비 : 1조 324억원(주문진~속초간)
- 주요시설 : IC 3개소(하조대, 양양, 북양양), JCT 1개소(양양)
- 사업기간 : 2004.12.~2015.12.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남~하조대IC 구간(1~2공구) : 2009.11.27. 개통  
※ 하조대IC 이후 일부 구간 : 2012. 12월 준공 예정
  - 4공구~5공구 : 2015.12. 준공 예정

## 9)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

송이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산림휴양 수요가 다양화되고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의 증대추세에 맞추어 가족중심의 체제형 및 체험형 산림휴양림을 조성한다.

### 〈표1-15〉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8필지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8. 5.~2011.12월(설계 1년, 조성 2년, 보완 1년)
- 면적 : 42.75ha(427,500㎡)
- 사업비 : 5,541백만원(신활력 817, 국비 2,272, 도비 578, 군비 1,874)
- 사업량 : 산림문화휴양관의 4개 시설 17종
- 사업내용 :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송이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체험형 자연휴양림 조성

## 1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백두대간의 자연생태·역사·문화 및 지역특성에 부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하고 녹색체험과 교육이 병행된 특성화된 시설설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다.

사업장 위치로는 양양읍 월리 일원(506~3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량은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1식이 된다. 사업비로는 총 106억원(국비53, 도비15, 군비38)이 투자된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백두대간 최고의 생태교육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 1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지역정서에 특화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국산목재 조성으로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활동(DIY) 가능한 오감(五感) 만족 코어존을 형성하게 된다.

사업장 위치로는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3필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야외전시시설 등 관람시설 외 부대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는 5,196백만원(국비 2,598, 도비 779, 군비 1,819)이 2010~2012년까지 투자된다.

집필 : 함석중, 이재섭, 정석중, 김진하



## II. 축제

선사시대인 (B.C.6000~4500년경) 신석기인들이 손양면 오산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신석기 문화를 형성하며 당대의 산업과 문화를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문화를 토대로 근세에는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와 함께 동해바다의 신을 위무하기위해 동해 제1의 성소(聖所) ‘동해신묘’에서 국가주관으로 제사를 봉행하던 ‘동해신묘 제례’와 진 전사지, 선림원지 등 불교의 근원이 있는 불교문화의 발상지, 불교문화를 꽃피운 동해안 문화중심으로 자리 매김 해왔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인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하천 남 대천과 백두대간은 독특한 전통문화를 형성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현대에 이르러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1979년 현산문화제위원회를 구성 ‘제1회 현산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후로 현산문화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제31회 현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흩어져 있던 양양의 전통 문화들이 표현되고 발전되어 전국에 그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리적 여건상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대문화예술진흥의 토대가 되었다. 2009년 현재 양양문화예술발전의 기반이 활발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향후 양양의 전통문화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 주민소득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제1회 ‘해맞이축제’와 ‘연어축제’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1997년에는 제1회 ‘송이축제’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제13회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해맞이축제’는 14회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축제를 거듭 개최해 오는 동안 송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축제평가에서 육성축제 2회, 우수축제 9회, 최우수축제 2회를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연어축제와 더

불어 일본, 동남아, 호주, 유럽 등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축제이다.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 확산과 교통·관광산업의 발달로 각 자치단체마다 독특한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양양의 축제는 그 명품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제발전만을 위한 기반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현산문화제

고려 목종 10년(1007년) 현재의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순국영령 위로와 국태민안, 풍년을 기원하는 장군성황제를 지냈는데 그 제례의식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양양에서는 매년 단오를 전후하여 ‘현산문화제’를 개최



현산문화제

하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례행사와 전야제, 각종 민속놀이 등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을 전승하는 뜻 깊은 문화행사인 ‘양양현산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군민의 신명나는 화합의 축제이기도 하다.

### 〈표2-1〉 현산문화제 행사개요

- 개최일시 : 매년 단오 전후 3일간
- 축제장소 :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문화복지회관 등)
- 참여인원 : 연인원 80,000여 명
- 주 최 : 현산문화제위원회
- 주 관 : 양양문화원
- 후 원 : 속초경찰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릉보훈지청, 충용부대, 일출부대, 해군108전대, 강릉 MBC, GTB, YBS,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전국매일, 설악신문
- 행사내용
  - 장군성황제 : 고치물제, 성황제
  - 전야제행사 : 양고밴드행렬, 영신농악행렬, 가장행렬(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청성 풍물패, 어린이농악, siaa밴드, 제등행렬, 사회단체 시가행진, 전통무용, 여성회관 과목시연, 장

- 수대학 공연, 한가람풍물패 공연, 군민노래 자랑, 인기가수 초청 공연, 불꽃놀이
- 식전행사 :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가장행렬(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궁도대회, 통배경기, 청소년국악사물놀이 경연
- 개 막 식 : 대회사, 격려사, 축사, 군민문화상 시상, 축포
- 식후행사 : 조산·강현·손양초교 농악시연, 양양초교 고적대시범, 어린이유도 시범, 통일 염원 풍선날리기
- 민속시연 : 수동골상여소리 시연, 동호리멸치후리 시연
- 민속놀이 : 그네뛰기, 바둑대회, 목침뽑기, 단체줄넘기, 투호놀이, 씨름, 단체줄넘기, 어린이굴렁쇠 굴리기, 물동이이고달리기, 목발던고 달리기, 어린이세발 자전거대회, 옷놀이(남, 녀), 노인 공굴리기, 널뛰기, 줄다리기, 장기대회, 탁장사놀이
- 경축문화행사 :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상평초교 기악합주, 시낭송 및 각종댄스 공연, 문화원민요·클래식기타 연주회, 추성판소리 공연, MBC가요베스트 공연

자료 : 현산문화제위원회, 2009년도 제31회 현산문화제 결과보고서

## 2. 송이축제

### 1) 개최배경

송이는 대부분의 다른 버섯과는 달리 죽은 나무에서 발아하지 않고, 살아있는 20~60년생의 소나무 뿌리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사신에게 선물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으며, 현재에도 송이는 최고의 정성을 담은 귀중한 선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양송이축제’는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소재로 하여 각종의 현장체험을 통해 송이의 생육환경을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으로써 청정지역인 양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의



송이축제 행사장 및 외국인 현장체험

소중함을 동시에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년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2009년도에 제13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축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신활력 지역으로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송이가 양양의 중심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 〈표2-2〉 양양송이축제 행사개요

- 명 칭 : 양양송이축제(YANGYANG SONG-I FESTIVAL)
  - 부명칭 : 천년의 향! 양양송이축제
- 주 제 : 자연과 인간의 조화
- 부 제 : 양양송이와 사랑에 빠지다.
- 슬 로 건 : 재미있게, 신나게, 실속있게!(재미있게 구경하고, 신나게 즐기고, 실속있게 구입하자)
- 기 간 : 매년 추석전후(5일간)
  - 외국인 현장체험 : 30일간 / 관내호텔 송이요리페스티벌 : 30일간
- 장 소 :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송이산지
- 주 최 : 양양군
- 주 관 : 양양송이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양양주재 언론사
- 관광객수 : 매년 40~50만명
- 예 산 액 : 8억원 내외(국비·도비·군비)
- 추정 경제파급(관광소비) 총 파급효과 : 130억원 내·외
- 행사내용
  - 개막행사 : 산신제, 개막식(식전행사·퓨전타악공연 등), 개막축하공연
  - 현장체험행사 : 외국인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생태견학, 송이보물찾기, 동호리멸치후리기, 송천리떡마을체험, 어성전탁장사체험 및 홈스테이, 낙산배따기체험, 밤줍기체험
  - 문화예술행사 : 탁상자 놀이, 전통혼례 재현, 현대무용공연, 청소년댄스공연, 국악공연 및 전통예술공연, 레크레이션, 야간무대공연, 군민화합 문화예술제
  - 맛체험행사 : 송천떡만들기, 송이요리전문점, 송이요리페스티벌, 송이요리시식
  - 기타행사 : 양양송이알아맞히기 및 낙산배까기 대회, 송이마라톤대회, 송이배배드민턴대회, 송이배축구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
  - 상설행사 : 송이주제관, 분재전시, 전통민예품만들기, 낙산배 판매·포평회 및 전시, 특산물 판매점운영, 꽃누름·천연염색 전시 및 체험, 양양송이직거래장터운영, 양양관광기념품 판매, 로봇전시 및 체험, 킷체험, 민속놀이마당, 페이스페인팅, 송이돌이만들기 및 도자기체험, 사진전, 시화전, 야생화·허브전시회, 송이홍보관운영, 송이조각공원운영, 무선함운영, 소달구지체험, 축제종합안내소 운영, 셀프송이볼링장, 송이생태산책로 및 송이주막 운영
  - 거리행사 : 송이홍보단 퍼레이드, 길놀이

## 2) 송이의 우수성

송이의 효능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 성덕왕 3년(704년)에 송이를 왕에게 진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원년에 명나라에 송이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송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솔 냄새가 난다. 이것은 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서 솔 기운을 받으면서 돋는 것으로 버섯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억제효과, 혈액순환증진,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성인병 치료의 효과가 있으며, 송이버섯의 단백질과 비타민 성분은 편도선, 유선염, 탈하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성분 중 유리 지방산에는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매우 높게 존재하고 있으며, 무기질 함량은 일반 버섯류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칼륨의 경우는 느타리의 10배, 양송이의 약 40배 정도, 목이버섯의 약 3배 정도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철분 또한 타 버섯류의 10배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산림청 지리적표시제등록 제1호 '양양송이'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송이! 송이는 매년 그 해 기온, 습도의 여부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만큼 환경에 민감하여 아직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100% 자연산이다. 날씨, 토양 등 최적의 자연환경 백두대간에서 자란 '양양송이'는 국·내외 타 지역 송이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아 육질이 두텁고 단단하며 영양도 풍부하다. 특히 송이 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연구팀에 의해 증명되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 ○ '산림청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어축제

#### 1) 개최배경

양양지방의 하천은 우리나라의 영서 및 내륙지방과는 달리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하천들이 대부분 연장이 짧고 급경사를 이룬다. 또한 타지역과는 달리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그 청정성 또한 잘 유지되고 있다. 특히 양양을 끼고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은 하구의 강폭 유역이 넓고 강물이 깨끗하여 토착어종 및 회유어종이 모천으로 살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연어축제장 전경(탁본뜨기 및 외국인 맨손잡이체험)

남대천에서 부화되어 바다로 나간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및 베링해를 거친 후 자라서 알을 낳기 위해 되돌아오는 데는 약 3~5년 정도가 걸린다. 우리나라에는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이 18개정도이며 이중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전체의 약 70%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년 대청봉과 백두대간의 산봉우리들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남대천으로 연어들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연간 약 18,000마리 정도의 연어가 남대천으로 올라온다.

남대천에 어도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알을 낳기 위해 남대천 상류인 어성전, 범수치까지 올라왔다고 전해지지만, 최근에는 홍수가 잦고 인적·물적 피해 늘어나면서 하천 치수차원에서 ‘보’를 설치함에 따라 서면 용천리 상류로는 연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연어자원 증강을 위해 손양면 송현리에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

터'를 세우고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강 중간에 그물막을 쳐 포획한 후 인위적으로 인공채란·수정·방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연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연어를 통해 양양을 대·내외에 알리고 양양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남대천을 중심으로 1996년 제1회 연어축제를 개최한 이후 2009년 제13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축제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하여왔으나, 2002년도에는 양양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준 '태풍루사'로 인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표2-3〉 양양연어축제 행사개요

- 명 칭 : 양양연어축제(YANGYANG SALMON FESTIVAL)
- 주 제 :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의 물
- 부 제 : 인간을 닮은 연어의 삶을 배우며.....
- 슬 로 건 : 생명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의1번지
- 기 간 : 매년 10월 중순경(2일간)
- 장 소 : 양양남대천둔치 및 부대행사장
- 주 최 : 양양군
- 주 관 : 양양송이축제위원회
- 후 원 : 강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냉수성어류연구센터, 한국관광공사, 방송사, 언론사
- 관광객수 : 매년 20만 명 내외
- 예 산 액 : 1억 5천만원 내외(군비)
- 행사내용
  - 개막행사 : 용왕제, 개막식
  - 체험행사 : 연어맨손잡이 체험, 연어뜨기체험, 연어몰이 체험, 재첩 체험, 양양연어OX퀴즈, 자전거 천천히 타기 대회
  - 문화행사 : 농악놀이, 전통소리 재현, 댄스 공연, 지역문화단체 공연, 연어일대기, 전자현악, 경기 민요, 사랑댄스, 파워댄스
  - 상설행사 : 연어탁본뜨기,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견학, 연어홍보·교육관, 신종플루확산 방지센터, 허브활용 체험, 공예체험, 페이스페인팅, 허브공예 만들기, 예쁜손 글씨, 비누방울 체험, 나만의 손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꽃누름 전시, 전통규방 체험, 장난감 전시, 양양사진 전시, 국화차 시음 및 판매, 연어요리시식코너, 농·특산품판매코너, 감품종전시, 양양미나리 홍보, 화훼꽃 전시 및 판매, 낙산배 홍보 및 판매, 양양 양봉꿀 판매, 해뜨미 시식 및 판매, 오마니 전갈 판매, 송천떡 체험, 연어판매 및 포장, 연어요리전문음식점, 아이스박스 및 얼음 판매, 재첩요리시식 및 판매

자료 : 양양군, 2009년도 양양연어축제 결과보고서

## 2) 어머니의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생태이야기와 우리의 노력

연어는 3년이면 60cm 정도까지 성장하여 번식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북미, 러시아 등 북반구에 널리 분포하며 산란기는 9~11월경이고, 이때 특유의 혼인색을 띠며 수컷은 위·아래턱이 튀어 나와 구부러진다. 산란절식(産卵節食)하며 험난했던 여정 끝에 모천인 남대천으로 무사히 도달한 연어는 얇은 수심의 모래나 자갈바닥을 수컷이 꼬리로 후두둑 파서 직경 1m 정도의 산란장을 만들어 평균 500~3,000개나 되는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치고 자갈 등으로 알을 덮고 나면 암·수 모두 죽는다. 수정된 알은 수온이 12℃ 정도에서 46일 정도면 부화하여 바다로 나간다. 그러나 이렇게 묻혀진 연어 알의 부화는 인간에 의해 오염된 환경이나 다른 생물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는 전문가를 두고 연어의 채포, 수정과 산란, 부화의 과정을 통해 해마다 산란 및 어린연어 방류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하천을 찾는 연어 70% 이상이 모천인 남대천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어린 연어도 70% 이상이 남대천에서 바다로 가고 있다.

양양군에서는 연어산업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촌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차원에서 연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연어를 중심으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연어를 원료로 하는 식품(요리, 2차 가공), 기념품 제작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육성, 기술개발, 원료조달(자체생산, 수출입), 인력·정보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북태평양 연어잡이 쿼터 확대, 연어특구 지정 지원, 연어자원 증대, 자원보호, 연어테마 콘텐츠 사업,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 내수면 관리, 연어축제 명품화, 연어관련 기업 유치, 연어콘텐츠 발굴 활용지원, 해외(일본) 연어산업 연구, 연어생태 연구, 연어식품 생산·유통, 연어 부산물 가공 등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브랜드 향상, 연어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고용창출, 관광객 유입 그리고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양양공항 활성화’ 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 해맞이축제

양양군이 동해안 중에서도 일출의 고장이라고 손꼽히는 이유는 낙산 의상대 해변가에서 맞이하는 일출이 어느 지역보다 장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뜻 깊은 역사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양양이란 襄(오를 양)자와 陽(해 양)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뜻이며, 고려시대(1260년)부터 이곳 양양의 동쪽 해안가 낙산에 동해신을 모시는 동해신묘를 건립하여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국태민안,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일출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해오름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낙산에서 새해 일을 보며 소원을 빌면 그 해에는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올 만큼 일출의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일출맞이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옛조상의 얼을 기리기 위해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해맞이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도에 제1회를 개최한 이후 2009년 12월 31일 ‘제14회 해맞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낙산해수욕장 해맞이 전경



낙산사 범종타종식

### 〈표2-4〉 양양해맞이축제 행사개요

- ▶ 명 칭 : 양양해맞이축제(The New Year Festival , YANGYANG)
- ▶ 기 간 : 매년 12월 31일 - 1월 1일
- 장 소 : 낙산해수욕장, 낙산사, 오색령정상, 동호리·원포·지경·하조대해수욕장, 기사문항, 인구항, 남애항, 쓸비치, 골든비치리조트 등
- 주 최 : 양양군
- 후 원 : 각 지방 언론사

- 협 조 : 관내 각급 기관단체
- 관광객수 : 매년 20만명 내외
- 예 산 액 : 1억원 이내(군비)
- 행사내용
  - 낙산해수욕장 : 모닥불 밝히기, 락 공연 및 국악 공연, 불꽃 공연, 군수신년인사 방영, 사랑의 떡국 나누기, 동해신묘제례,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송이식품 시식, 연날리기시연
  - 오색령 정상 : 산신제,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떡국 및 커피나누기
  - 동호리 해수욕장 : 모닥불피우기,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감자·고구마 구워먹기
  - 하조대 해수욕장 : 용왕제제례 병행, 모닥불 밝히기, 촛불 밝히기, 떡·커피 나누기
  - 남애항 : 모닥불 피우기, 불꽃 공연, 떡국 나누기
  - 인구항 : 모닥불 피우기, 송구영신한마당, 촛불 밝히기
  - 지경해수욕장 : 모닥불 피우기, 농악놀이, 불꽃공연 등
  - 원포해수욕장 : 모닥불 피우기, 떡국 나누기, 차 나눔의 시간
  - 낙산사 : 범종 타종식

〈표2-5〉 기상개황(제10회~제14회)

구분	일 자	날 씨	기 온			평균풍속	일조시간	비 고
			평균	최저	최고			
제14회	2009.12.31.	맑음	-6.5℃	-8.7℃	-3.9℃	6.1m/s	8.6hr	일출 관람
	2010. 1. 1.	맑음	-7.6℃	-12.7℃	-3.6℃	7.0m/s	8.3hr	
제13회	2008.12.31.	맑음	-3.5℃	-7.1℃	1.4℃	6.1m/s	8.36hr	일출 관람
	2009. 1. 1.	맑음	-1.6℃	-6.4℃	3.9℃	7.0m/s	8.3hr	
제12회	2007.12.31.	맑음	-4.0℃	-6.5℃	0.6℃	4.6m/s	7.5hr	일출 관람
	2008. 1. 1.	맑음	-3.7℃	-7.1℃	1.1℃	2.2m/s	8.3hr	
제11회	2006.12.31.	맑음	1.3℃	-1.7℃	6.0℃	2.0m/s	7.2hr	일출 못봄
	2007. 1. 1.	약간흐림	4.5℃	-0.3℃	8.9℃	1.6m/s	6.0hr	
제10회	2005.12.31.	눈후흐림	0.5℃	-0.6℃	2.8℃	2.2m/s	0.5hr	일출 못봄
	2006. 1. 1.	흐림	2.1℃	-2.2℃	5.7℃	2.4m/s	1.4hr	
제9회	2004.12.31.	눈	-2.7℃	-5.7℃	1.1℃	4.0m/s	1.8hr	일출 관람
	2005. 1. 1.	맑음	-2.4℃	-7.6℃	2.8℃	4.3m/s	7.5hr	

자료 : 양양군, 2009년도 양양해맞이축제 결과보고서

### 5. 마을단위축제

마을단위축제는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테마가 있는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말을 이용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자연친화적 농산어촌의 생활과 체험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마을단위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2009년도 마을단위 축제로는 갈천리 치래마을 산나물 축제, 서림리 해당마을 돌탑쌓기 축제, 황이리 황룡마을 축제, 동호리 멸치후리기 체험, 하광정리 바캉스를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어성전2리 탁장사 마당놀이 축제, 원일전리 금풀애 옥수수 축제, 두창시 변리 어린 모래톱 축제, 원포리 순백의 해변 한여름 축제, 인구1리 어울림 체험 이벤트, 지경리 여름해변 축제 등 총 11개이다.

〈표2-6〉마을단위 축제 현황

읍면	축 제 명	기 간	행 사 장 소	행 사 내 용
계	11개			
서면	갈천리치래마을 산나물 축제	5월중순	갈천리 산촌체험장	· 산나물채취 체험행사, 구룡령 옛길 등산 · 갈천약수 마시기 대회
	서림리 “해당마을 돌탑쌓기 축제”	7월중순	서림마을 휴양지 일원	· 돌탑쌓기체험, 은어맨손잡기 · 수륙양용차 체험 등
	황이리 “황룡마을 축제”	10월초순	황이리 일원	· 얼음굴 등산, 부엉이 만들기 · 불바라기 약수체험
손양	동호리 멸치후리기	9월중순	동호해수욕장	· 전통 그물후리기방식의 멸치잡기체험
현북	바캉스를 하조대해수욕장에서	7~8월	하조대 해수욕장	· 맨손조개잡이, 오징어잡이 · 미니축구, 후리그물 당기기
	탁장사마당놀이	8월중순	어성전2리 탁장사마을	· 탁장사 마당놀이 · 전통떡만들기
	금풀애 옥수수 축제	8월초순	원일전리 일원	· 옥수수따기, 옥수수 떡만들기 체험 등
현남	어린모래톱 축제	7~8월	죽도해수욕장	· 선상배낚시, 뗏목놀이, 백사장 썰매끌기 등
	순백의 해변 한여름 축제	7~8월	원포해수욕장	· 후리그물당기기, 오징어맨손잡기
	어울림체험이벤트	8월중	인구해수욕장	· 낚시배 체험, 선상바다 관광체험
	지경리 여름해변 축제	7~8월	지경해수욕장	· 감자케기, 옥수수따기 · 발우봉 등산, 모래성 쌓기 등

자료 : 양양군, 2009 마을단위 축제개최 현황



## Ⅲ. 체 육

### 1. 체육의 발자취

양양군의 체육은 1920년대부터 “단양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단오절을 기하여 대제전으로 발전하여 왔다. 당시 남대천변에서는 군민의 안녕을 비는 별신굿을 5~6일씩하고 관동축구대회를 비롯한 민속행사를 개최한 것이 양양체육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8·15광복을 계기로 신체 단련을 위한 무예와 군사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현대적 체육으로 전환되었다.

6·25한국전쟁을 거치고 수복이후인 1955년 4월 군체육회가 창립되어 양양공설운동장(현재의 충용APT부지)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규모가 커지면서 운동장이 협소하여 양양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개최하였다. 공설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각종체육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1989년에 남대천 둔치일원에 9,600㎡규모의 운동장시설을 조성하고 1990년도부터 제22회 군민체육대회와 제12회 현산문화제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한편 1960년대 초부터는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팀이 창단되어 사이클의 고장으로서의 초석을 다져오던 중 1983년에는 양양여자고등학교, 1991년도에는 양양군청 여자사이클팀을 창단하였다. 특히 양양군청 여자사이클팀은 1996년도에 해체하고 남자사이클팀을 재창단하여 사이클의 고장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그동안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노력한 결과 국내외의 우수한 각종대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등 국가대표선수 등을 다수 배출하여 국위선양에도 일조하였다.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체육이 강조되면서 1991년 7월 양양군생활체육협

의회가 창립되었다. 산하의 종목별연합회에서는 각종대회를 유치하는 등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91년도에는 양양읍 서문리 146번지에 양양실내체육관을 준공하여 각종행사나 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양양군은 계속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오다가 2009년 양양국제공항 입구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에 양양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전용 벨로드롬 등)을 조성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양양체육의 발자취와 체육단체 활동상황 및 체육시설을 살펴보고 군내 17개 체육 가맹단체 중에 특히 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사이클연맹의 활동상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2. 양양군체육회

### 1) 개황

본 체육회 설립목적은 체육진흥법에 따라 범 군민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총괄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지도 육성하여 군민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양군체육회는 1955년 4월 7일 발족되어 초대회장으로 박태송 씨가 선임되어 선출직 회장제로 운영되었으며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양양과 속초와 고성군의 토성면 일대를 포함하는 넓은 구역으로 되어있었다.

1961년 3월 5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강원도지부 양양군체육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회장에 심호은(沈湖殷)군수가 선임되어 활동하여 오면서 역대회장<표3-1>은 1965년부터 군수가 당연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매년 추절기(秋節期)에 정기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열고 각 면은 춘추기(春秋期)를 택해 매년 정기적으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체육회 업무는 영동권투체육관(1960년 개관)초대 관장을 지낸 최은환 씨가 1978년부

터 양양군청 체육회 간사로 임명되어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양군 체육발전에 공헌 하였으며, 1990년 2월 12일자로 정명시 군수 재임시 이광형 씨가 간사로 임명되어 새마을과 건전생활계에서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1월 21일자로 양양군청에서 관장하던 체육회 업무를 양양군체육회로 이관되어 체육회사무국 사무국장에 이광형씨가 임명되면서 부터 체육업무 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양양읍 남문 4리 양양문화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에 1966년 제1회 대회부터 매년 참가하여 왔으나, 출전성적 <표3-4>은 1960년부터 1979년까지 도내 17~19위권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부진을 보였으나, 1980년부터 종합순위 채점방식이 변경되어 참가시군을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대회를 운영하면서 양양군은 2부에서 1996년과 1997년 연속 4위를 기록한바 있으며 이후 7~8위권으로 하위 수준으로 이었으나 최근 부진 종목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2008년도에 5위 2010년도에는 6위를 하는 등 성적 향상을 이룬바 있다

<표3-1> 체육회 역대회장

구분	성명	재임기간	비고
1대	이건웅	1965. 3.27.~1967.12. 1.	
2대	최해규	1967.12. 2.~1971. 8.20.	
3대	지원용	1971. 8.21.~1973. 8. 3.	
4대	원락희	1973. 8. 4.~1976.12.25.	
5대	최계명	1976.12.26.~1979. 4. 3.	
6대	조성운	1979. 8. 4.~1979. 7.31.	
7대	정준시	1979. 8. 1.~1981. 6.30.	
8대	장재현	1981. 7. 1.~1982. 9.17.	
9대	이종남	1982. 9.18.~1986. 4. 7.	
10대	권영일	1986. 4. 8.~1986.12.23.	
11대	권혁신	1986.12.24.~1988. 2.21.	
12대	이종호	1988. 2.22.~1989. 3. 7.	
13대	정명시	1989. 3. 8.~1993. 3.28.	
14대	김창수	1993. 3.29.~1994. 6. 2.	
15대	은희성	1994. 6. 3.~1995. 6.31.	

구분	성명	재임기간	비고
16대	오인택	1995. 7. 1.~1998. 6.30.	
17대	오인택	1998. 7. 1.~2002. 6.30.	
18대	이진호	2002. 7. 1.~2006. 6.30.	
19대	이진호	2006. 7. 1.~ 현재	

〈표3-2〉 체육회 이사회 명단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성명	직위
회장	이진호	양양군수	이사	강재봉	배구협회장
상임부회장	임용식	전강원도의회 의원	이사	이응관	탁구협회장
부회장	이계동	양양군 부군수	이사	정준영	핸드볼협회장
부회장	이상집	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이사	방양호	사이클연맹회장
부회장	김일수	양양군의회 의원	이사	신재석	복싱연맹회장
상임이사	오한석	양양군 문화관광과장	이사	박용갑	씨름협회장
이사	박필용	강원일보 양양지사장	이사	이상구	유도협회장
이사	김준영	도민일보 양양지사장	이사	최화길	검도협회장
이사	정준화	양양생활체육회 회장	이사	안태현	궁도협회장
이사	한기인	양양읍 성내리 11	이사	윤강희	사격연맹회장
이사	김형식	양양중·고등학교장	이사	임원규	역도협회장
이사	박순원	양양중·고등학교체육부장	이사	박하영	태권도협회장
이사	윤무진	양양여자중·고등학교장	이사	김준식	볼링협회장
이사	조길현	양양여자중·고등학교체육부장	이사	이석천	골프협회장
이사	선창영	육상연맹 회장	이사	최익순	우슈협회장
이사	장명진	수영연맹 회장	이사	김순교	요트협회장
이사	김태호	축구협회장	이사	최선남	인라인협회장
이사	정병추	야구협회장	이사	김시범	배드민턴협회장
이사	주현식	테니스협회장	감사	이태우	양양임협대표
이사	노송현	정구협회장	감사	진한초	체육진흥담당
이사	백종호	농구협회장			

## 2)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1) 육상연맹

양양군 육상은 1980년 5월 선창영 초대회장을 주축으로 차지성씨 등 이사 18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대 이상형 회장, 3대 김시범 회장을 거쳐 1995년 4대 회장으로 선창영 회장에 이르러 육상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울산시청 소속 지도자로 활동 중인 한국기록 보유자 최종범을 발굴하였고, 양양출신으로 발군(拔群)의 실력을 보유한 정만용 육상코치를 설득 영입하여 관내 초, 중학교 순회 교육을 하여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9년도에는 양양군체육회장기 초, 중학교 육상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육상 꿈나무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2) 수영연맹

1990년 초등학교 수영을 가르치던 한기인 선생을 중심으로 1993년 창립하여 1996년 장명진 씨를 초대회장으로 하고 한기인 선생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수영연맹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양양초등학교 출신인 박정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한국 수영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3) 축구협회

1981년 이강원 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여 정규 운동장 부재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89년 남대천 둔치에 축구장을 마련 현재 동호회 성격의 7개 클럽이 활동중이다. 축구 동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8년도에 군 지원하에 양양중고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에는 남대천 둔치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이클 벨로드롬 옆에 인조잔디 운동장 건립계획이 있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4) 야구협회

2002년 5월 초대회장으로 이주호 씨를 추대하여 송이야구단 창단과 함께 야구협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연어야구단을 창단하여 양대 구단체제로 운영되었다. 2005년 제2대 야구협회장에 취임한 정준화씨는 2006년에 둔치에 정규규격의 야구장을 건립하고, 옆에 보조경기장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미래의 꿈나무 육성의 중요함을 실감하고 2007년 5월에는 강원도 최초로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양양군청야구팀인 오래오래야구단을 창단 양양군 홍보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 (5) 탁구협회

1983년 초대회장에 박문수 씨를 추대하여 출범한 탁구협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군에 수차례 탁구장 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양양읍 서문리에 250m<sup>2</sup> 규모의 탁구장을 2005년 5월에 완공하게 되었다. 그 이후 군민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제6회 강원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6) 핸드볼협회

1975년 박광준 씨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출범한 핸드볼협회는 당시 양양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양양명륜기술중학교, 3개 학교에 핸드볼을 지원하면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1978년 제2대 이종영 회장이 취임하면서 양양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양양여중, 양양중, 양양여고에 핸드볼 종목 확대 편성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제6대 정준영 회장이 취임하여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 하는 등 핸드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7) 사이클연맹

1960년대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팀 창단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며 사이클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 하는 등 양양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힘썼으며 좀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996년 7월 박충규 씨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현재 제5대 방양호 회장에 이르는 동안 양양여자중·고등학교 및 양양중·고등학교 지원, 그리고 양양 사이클인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벨로드롬 경기장을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지성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에 엄인영 선수가 출전하는 등 한국 사이클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8) 유도협회

양양군 유도협회는 1996년 초대 임원규 회장을 추대하였으며 2001년 진순조(백호유도관 관장)가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유도활성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현산문화제 및 어린이날 유도시범으로 유도 대중화 및 부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9) 양양군 궁도협회

1976년 5월 10일 양양군궁도협회가 현산정이라는 명칭으로 초대회장에 박춘섭 씨를 추대하여 창립하였다. 당시 고노골 궁도장을 이용하다가 1989년 남대천둔치로 이전, 확장 신축하며 많은 궁도인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현산문화제기념 양양군 궁도협회장기 강원도남·여궁도대회를 2009년부터 제1회 양양군수기 강원도남·여궁도대회로 승격시켜 2010년 2회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본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양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섰으며, 2010년 현재는 제14대 안태현 협회장이 궁도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10) 사격연맹

1996년 1월 초대회장에 최무사를 추대하여 클레이사격 분과 위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2년 제 3대 회장 정연창이 취임하며, 양양상평초교에 꼬마사격단 창단하여 꿈나무 사격인 양성에 노력하였고, 2003년에는 양양군 실내사격장건립 사격인들이 마음놓고 연습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2010년 3월 전국마스커즈 사격대회를 유치하는 등 사격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1) 역도협회

양양군 역도협회는 2008년 5월 초대 임원규 회장을 추대 창단 첫째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비록 열악한 시설인 현 남중학교 5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 연습장이지만 초·중·고 학생 11명이 양양역도의 명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역도협회는 전 역도선수 출신 김주원 코치를 새로 영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12) 태권도협회

1990년 박용길 초대회장을 추대하여 창립한 태권도 협회는 10여년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현재는 제3대 박하영회장이 관내 4개 도장 관원들을 중심으로 태권도 발전은 물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3) 골프협회

1994년 임병철 초대회장을 추대하며 출범한 양양군 골프협회는 2010년 6월 현재 양양골프회, 그린골프회, 현산골프회, 서면골프회, 손양골프회, 현북골프회, 현남골프회, 강현골프회, 잔디골프회, 한마음골프회 등 10개 동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동해안 최고의 시설인 골든비치 골프장에서 정기전을 갖는 등 주민들의 체력단련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4) 요트협회

2004년 김순교를 초대회장을 추대하며 출범한 요트협회는 군에 수차례 요트마리나 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손양면 수산항에 동해안 최대의 요트마리나 시설을 2009년 6월 완공하였다. 2009년 완공기념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와 2010년 제 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성공리 개최하여 전국의 요트인들에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최신시설을 갖춘 곳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앞으로 전문요트인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15) 인라인스케이트 협회

양양군 인라인스케이트 협회는 2007년 최선남 초대회장을 추대하며 결성되었다. 설립해에 양양군과 협의하여 기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확장하였으며, 인라인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10년 현재 45명의 유망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연합회장기 강원도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개최 300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16) 배드민턴 협회

1993년 3월30일 김승주 회장을 추대하여 창립한 협회는 양양군 실내체육관과 양양 초등학교 다목적실을 훈련장소로 이용하며, 각종 대회에 참여하면서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매년 송이축제행사시 도단위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여 양양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다.

이상의 양양군체육회 산하단체 외에도 테니스협회(회장 : 주현식), 정구협회(회장 : 노송현), 농구협회(회장 : 백중호), 배구협회(회장 : 강재봉) 복싱협회(회장 : 신재석), 씨름협회(회장 : 박용갑), 검도협회(회장 : 최화길), 볼링협회(회장 : 김준식), 우수협회(회장 : 최익순), 등이 산하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경기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3-3〉 역대도민체육대회전적

시군별/회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7회	18회	19회	24회	25회
춘천시	1	1	1	1	2	1	1	1	1	1	1	1	2	1	1	1	2	1	2
원주시	2	2	3	3	1	2	2	3	4	3	3	4	3	4	3	3	3	3	1
강릉시	7	6	5	6	6	7	3	2	2	2	2	3	5	3	2	2	1	2	3
동해시	-	-	-	-	-	-	-	-	-	-	-	-	-	-	5	5	4	6	5
태백시	-	-	-	-	-	-	-	-	-	-	-	-	-	-	9	9	10	8	12
속초시	4	4	6	5	5	9	9	9	6	6	8	9	9	15	10	7	9	9	14
삼척시	-	-	-	-	-	-	-	-	-	-	-	-	-	-	-	-	-	10	21
홍천군	6	5	4	5	4	4	4	8	7	8	7	6	4	-	7	10	8	5	11
철원군	13	12	17	19	17	16	19	12	13	14	1	18	19	16	3	2	2	6	18
명주군	7	8	13	16	7	3	7	7	5	5	5	5	8	6	7 (2부)	8 (2부)	3	7	19
삼척군	3	3	2	2	3	6	6	4	3	4	6	2	1	2	4	4		11	20
춘성군	9	9	11	9	15	9	5	5	10	11	11	7	6	5	1	1	1	3	7
횡성군	10	17	13	15	9	15	15	13	15	12	15	14	13	13	5	3	6	7	9
원성군	12	15	10	7	11	11	16	16	19	10	12	8	14	18	4	4	4	1	4
영월군	5	7	8	13	8	10	8	6	9	7	4	10	7	7	6 (2부)	8 (2부)	7 (2부)	2	8
평창군	18	11	15	8	19	17	13	15	11	8	16	11	12	11	9	7	5	5	6
정선군	15	17	19	17	14	13	12	11	14	17	9	13	11	8	8	6	6	4	15
화천군	11	14	7	10	12	8	10	10	12	15	13	12	10	10	2	6	8	8	17
양구군	8	10	9	18	16	14	11	14	8	13	14	16	16	12	6	5	7	4	10
인제군	17	19	18	11	10	12	17	17	16	19	10	17	15	14	10	11	9	11	13
고성군	14	15	16	14	18	19	14	18	18	18	19	19	17	19	8	10	11	9	16
양양군	16	13	12	12	12	18	18	19	17	16	17	15	18	17	11	9	10	10	22

〈표3-3〉 역대도민체육대회전적

시군별 회별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38회	39회	40회	41회	42회	43회	44회	45회
춘천시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2	2	2	2
원주시	3	3	3	4	2	3	3	2	3	2	2	3	3	4	3	3	3	4	4
강릉시	2	2	2	2	3	2	2	3	2	3	3	2	1	2	2	1	1	1	1
동해시	4	7	5	6	8	5	5	5	4	6	8	4	6	5	6	5	5	5	3
태백시	8	9	9	7	5	8	8	7	8	7	6	6	4	6	5	6	7	3	6
속초시	9	5	4	3	4	4	4	4	6	4	4	8	7	7	7	7	8	8	7
삼척시	11	6	8	11	7	7	7	9	9	9	7	7	9	9	9	4	4	7	5
홍천군	5	4	6	5	5	6	6	6	5	5	5	5	5	3	4	8	6	6	8
철원군	6	5	6	11	3	2	2	2	2	1	9	9	8	8	8	9	9	9	9
명주군	7	10	7	8	-	-	-	-	-	-	-	-	-	-	-	-	-	-	-
삼척군	10	11	11	9	-	-	-	-	-	-	-	-	-	-	-	-	-	-	-
춘성군	1	1	1	1	-	-	-	-	-	-	-	-	-	-	-	-	-	-	-
횡성군	2	3	4	8	4	5	7	6	8	4	2	2	1	1	2	1	2	1	1
원성군	4	4	5	5	-	-	-	-	-	-	-	-	-	-	-	-	-	-	-
영월군	3	2	3	3	2	3	3	3	4	5	6	9	4	7	6	6	7	6	8
평창군	7	7	7	10	7	8	8	8	5	6	4	7	9	6	7	3	9	8	9
정선군	6	8	10	10	9	9	9	8	7	8	9	6	6	8	8	5	6	4	4
화천군	8	9	11	9	9	7	6	4	3	3	3	3	3	2	5	8	8	7	5
양구군	5	6	2	2	1	1	1	1	1	2	1	1	2	3	1	4	4	2	2
인제군	11	8	9	6	6	9	9	9	9	9	5	8	5	4	3	2	3	5	7
고성군	10	11	10	4	5	6	5	7	6	8	7	4	8	5	4	7	1	3	3
양양군	9	10	8	7	8	4	4	5	7	7	8	5	7	9	8	9	5	9	6

### 3. 양양군생활체육회

#### 1) 개황

우리나라 체육의 추세는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중심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도 접어들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

간의 증대는 생활체육 욕구의 확대를 가지고 왔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1991년 1월 8일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는 임시사무국을 1991년 4월 29일 개설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 창립총회 및 시군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도 동일일에 창립하여 2010년도에 축구, 배구 등 총 22개 종목에 1,663명의 회원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다.

양양군생활체육회는 2009년 12월 16일 양양군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 생활체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명칭을 생활체육회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3-4〉 생활체육회 역대회장

구분	성명	재임기간	비고
1대	한재덕	1991. 7. 1.~1993. 2. 1.	
2대	김철용	1993. 2. 2.~1995. 2. 1.	
3대	김철용	1995. 2. 2.~1997. 2. 1.	
4대	김철용	1997. 2. 2.~1999. 2. 1.	
5대	한재덕	1999. 2. 2.~2001. 2.28.	
6대	박용길	2001. 3. 1.~2007. 6.30.	
7대	정준화	2007. 7. 1.~ 현재	

## 2) 생활체육회 주요기능

생활체육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전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종목별 연합회 관리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동호인활동의 지원과 육성,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 생활체육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3) 생활체육회 주요사업 현황

〈표3-5〉 생활체육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경기종목	직 위	성 명	경기종목
고 문	한재덕	-	당연직이사	강 재 봉	배 구
회 장	정준화	-	〃	신 혜 정	생활체조
부 회 장	김시범	-	〃	전 인 원	게이트볼
선임이사	최화길	-	〃	이 응 관	탁 구
선임이사	이영록	-	〃	박 하 영	태 권 도
선임이사	이태우	-	〃	윤 강 희	사 격
당연직이사	김태호	축 구	〃	주 현 식	테 니 스
〃	김익환	수 영	〃	김 시 범	배드민턴
〃	김동일	스킨스쿠버	〃	최 선 남	인라인롤러
〃	김운수	풋 살	〃	장 용 구	등 산
〃	방양호	자 전 거	〃	정 병 찬	국학기공
〃	정병추	야 구	〃	박 광 수	검 도
〃	김영기	마 라 톤	감 사	김 익 환	-
〃	김동월	댄스스포츠	〃	진 한 초	-
〃	안태현	궁 도	사무국장	전 형 준	-
〃	이정섭	족 구			

#### (1) 생활체육교실

- 기 간 : 1월~12월
- 사업목적 :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간 유대강화
- 사업종목 : 수영, 에어로빅, 건강체조, 어린이밸리댄스, 축구, 탁구,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요가
- 참여인원 : 18,000명

#### (2) 어린이체능교실

- 기 간 : 3월~12월
- 사업목적 : 체육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 및 체력발달 도모

- 사업종목 : 수영(문화복지회관), 배드민턴(관내 초등학교 출장 지도)
- 참여인원 : 1,400명

(3) 청소년 체련교실

- 기 간 : 5월~10월
- 사업목적 :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유대 강화
- 사업종목 : 길거리농구대회, 클럽대항축구대회
- 참여인원 : 200명

(4) 여성생활체육강좌

- 기 간 : 1월~12월
- 사업목적 : 집단일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소홀한 수 있는 여성의 건강 제고
- 사업종목 : 수영, 요가
- 참여인원 : 1,300명

(5) 장수노인체육대학

- 기 간 : 5월~11월
- 사업목적 : 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유도
- 사업종목 : 게이트볼
- 참여인원 : 500명

(6)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 기 간 : 9월~10월
- 사업목적 : 청소년의 건전하고 밝은 여가생활 기회제공
- 사업종목 : 풋살경기 등
- 참여인원 : 200명

(7)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기간 : 1월~12월
- 사업목적 : 우리군 개최 생활체육대회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 사업종목 : 30여개 대회
- 참여인원 : 15,000명

#### 4. 양양군장애인체육회

##### 1) 개황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대회 개최로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관심부족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소수의 인원만을 출전시켜 대중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7월 29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2005년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체육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7년 5월 30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계기로 시·군 지부 설치를 중용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2009년 3월 속초시 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게 설립되었다.



곰두리배구단 창단 당시 연습(2007년)

양양군에서는 2007년 6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부회장이었던 전인원 씨를 중심으로 장애인곰두리게이트볼단이 결성되어 정식으로 장애인체육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해 10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이던 고정순 씨를 중심으로 곰두리좌식배구단을 결성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활동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한 장애인협회는 2008년부터 수영, 파크골프, 보치아 등 9개 종목의 동아리를 구성 활동해 오다가, 장애인체육회 설

립을 위해 양양군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김장호 씨 등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3월 16일 창립이사회를 거쳐 군수 이진호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장애인 곶두리좌식배구단】**

- 창단일시 : 2007. 10.
- 연습장소 : 양양군 실내체육관
- 인 원 : 11(감독1, 선수10)
- 연습일시 : 매주 화, 목

**2) 장애인체육회 기능**

양양군장애인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 육성발굴 및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표3-6〉 장애인체육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위	직 위	성 명	직 위
회 장	이진호	군 수	이 사	강영원	고려당대표
수석부회장	김장호	지체장애인지회장	이 사	이정섭	족구연합회장
부 회 장	정준화	생활체육회장	이 사	김영화	라이언스클럽회장
부 회 장	김재경	농아인지부장	이 사	이봉섭	탁구전무이사
부 회 장	강경수	시작장애인지회장	이 사	진영철	좌식배구회장
상임이사	오한석	문화관광과장	이 사	박원대	보치아회장
이 사	전인원	게이트볼회장	이 사	김윤식	바둑회장
이 사	백인현	수영회장	이 사	홍윤표	정다운마을 대표
이 사	김삼호	파크골프회장	이 사	이종석	동우대검임교수
이 사	함흥영	실내조정회장	감 사	진한초	체육진흥담당
이 사	이상도	탠덤사이클회장	감 사	엄상태	태웅건축설계대표
이 사	조대형	탁구회장	사무국장	고정순	

## 5. 양양군체육시설

### 1) 양양종합경기장 건설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경기장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양양종합경기장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93,623m<sup>2</sup>)에 건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말 현재 부지확보실적은 70,233m<sup>2</sup>(74.8%)이며, 2010년에는 경기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 추진은 잔여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종합경기장이 건설되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체육시설을 집중관리하게 됨으로서 군민의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과학적인 선수관리로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대회에서 보다 발전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2) 양양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벨로드롬) 건설

양양군은 지난 2009년 2월 24일에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본 시설의 조성목적은 군민의 체위향상과 사이클 고장의 전통을 이어가며 사이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양양종합스포츠타운 및 사이클 전용벨로드롬경기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위치는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에 건설되며,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3월까지 3년간 280억원이 투입된다. 총면적은 104,991m<sup>2</sup>이며, 축구장 1면(100m×68m), 육상트랙 8레인, 부대시설로 주차장, 광장, 체육공원 등이다.

사이클 전용벨로드롬은 관람석 1,500석, 트랙길이 333.33m 정규트랙경기장으로 건설되며 향후 본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하게 되면 사이클 고장의 위상정립과 선진형 전문스포츠 육성체제가 구축되어, 각종 국내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양 사이클은 창단 이래 훈련환경의 개선에 대해 열망하여 오던 차에 반세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소망이 이뤄지게 되었다. 국내 사이클 전용경기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인천벨로드롬경기장(333.33m)이 준공되었으며, 우리 군은 전국에서 15번째로 공인 사이클경기전용벨로드롬을 건설하게 되었다.

〈표3-7〉 양양 사이클 벨로드롬 사업개요

- 위 치 : 손양면 학포리 산 13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 2.~2011. 3.(3년간)
- 사업면적 : 부지면적 104,991㎡(31,759평) / 건축연면적 3,993.11㎡
- 시설내용
  - ▶ 사이클 경기장 : 관람석 1,500석, 트랙길이 333.33m
  - ▶ 축구장 : 1면(105m×68m), 육상트랙 8레인
  - ▶ 부대시설 : 주차장(170대수용), 광장, 체육공원, 옥외화장실 1동 등
  - ▶ 사업비 : 280억 원(국비 84, 도비 59, 군비 137)



양양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경기장)



양양 스포츠타운 기공식 발파 광경

### 3)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건설

양양군은 지난 2006년 4월 2일 요트마리나 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49억원을 투입하여 16,063㎡(기존 8,653㎡, 공유수면매립 7,410㎡)부지내 2007년 1차 푼튼시설(요트 17척 계류가능)을 완공하고, 2009년 6월 클럽하우스 준공, 그해 10월 2차 푼튼시설(요트 43척계류 가능)을 완공하여 명실공히 동해안 최고의 요트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에서 제9회 및 제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동해안 수상레포츠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4) 공공체육시설 현황

양양군의 공공체육시설을 살펴보면 <표3-9>과 같이 총 25개소이다. 시설별로는 실내체육관은 1991년도 양양읍 서문리 146번지에 건립하였는데 농구·배구·배드민턴 등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양양중고교생들의 체력단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남대천 둔치에는 1989년도에 9,600㎡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였는데 현재는 궁도장·야구장·농구장·배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소공원 등이 있으며, 2009년도에는 6,534㎡ 규모의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매년 군민체육대회 및 각종축제행사를 치루며 평상시에는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또 양양읍 조산리에 2004년 클레이코드 테니스장 1면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 추가로 하드코드 1면을 추가로 조성 완료 하였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여가 선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 총 4개소(양양읍 1, 서면 1, 손양면 1, 현북면 1)있으며, 2010년내 현남면과 강현면에 조성 예정이다. 풋살구장은 총 5개소(양양읍 1, 손양면 1, 현북면 1, 현남면 1, 강현면 1)가 설치되었으며, 서면풋살구장 역시 2010년내 조성 예정이다. 그 외 실내사격장과 탁구장은 양양읍 서문리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과 강현면에 체육공원 및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하여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3-8〉 양양군 공공체육시설현황

(단위 : m<sup>2</sup>)

소재지	시설명	시설면적	설치년도	비고
계	25개소	67,016		
양양읍서문리146-1	실내체육관	2,668	1991	2,390석
양양읍남문리226-9	둔치공설운동장	9,600	1989	2,000명
양양읍남문리362	공도장(현산정)	6,600	1993	21사대
양양읍조산리390-8	해오름테니스장(Ⅰ)	2,442	2004	클레이코드
양양읍조산리390-8	해오름테니스장(Ⅱ)	2,442	2008	하드코드
양양읍서문리248	양양실내게이트볼장	499	2008	인조잔디
서면상평리43	서면실내게이트볼장	539	2004	인조잔디
손양면하왕도리145-3	손양실내게이트볼장	598	2007	인조잔디
현북면하광정리124-11	현북실내게이트볼장	1,102	2009	인조잔디
양양읍서문리146-3	양양군사격장	199	2003	12사대
양양읍연창리203-19	문화복지회관수영장	731	2004	6레인
양양읍연창리203-19	문화복지회관에어로빅	153	2004	대나무후로링
양양읍서문리8-1	양양군탁구장	251	2005	탁구대 8대
서면상평리	서면인라인스케이트장	2,230	2006	시멘트
양양읍남문리226-2	둔치일라인스케이트장	3,520	2007	아크릴
양양읍연창리197	둔치야구장	10,466	2006	200명
현남면시변리11-1	현남풋살구장	1,056	2007	인조잔디
손양면학포리168	손양풋살구장	1,056	2003	인조잔디
현북면중광정리504	현북풋살구장	1,100	2008	인조잔디
강현면정암리565	강현풋살구장	1,100	2008	인조잔디
양양읍조산리733-13	양양풋살구장	1,100	2008	인조잔디
강현면상북리415-5	상북리체육공원	3,000	2009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강현면하북리680-23	하북리체육공원	869	2009	축구장, 농구장
강현면정암리565	강현운동장	5,742	2009	축구장
양양읍연창리32	둔치천연잔디축구장	6,534	2009	150명

## 6. 양양 사이클의 반세기

### 1) 사이클 도입배경

#### (1) 자전거는 통학수단

양양지역에서 자전거가 언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1960년대에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못한 시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읍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부분 먼 거리를 도보로 통학하였으나, 형편에 따라 점차로 통학교통수단으로 자전거통학학생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 (2) 교내 체육대회 자전거 등장

당초 양양중학교와 양양고등학교는 각각 단위학교별로 분리 운영해 오다가, 1959년도에 양양중고등학교는 새로운 교명으로 통합하면서 고등학교는 군행리(현 군청뒤편)에서 서문리 현재 중학교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새로 통합한 교명으로 시작한 양양중고등학교는 단일 교장(당시 이중세 교장) 운영 체재로 통



교내자전거대회(1961년)

합된 학사일정에 따라 교내체육대회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교내 체육대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대회로 구분하여 년 2회로 실시해 왔었는데, 전교생을 청백으로 나누거나 또는 읍 면단위로 통학 거주지별 팀을 구성하여 주로 배구·축구·육상경기 등 종목으로 진행하였는데 자전거 통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1961년 10월 12일 개교기념행사로 추계교내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자전거종목을 추가하게 되었다.

자전거종목의 경기진행은 자전거타고 천천히 가는 경주와 운동장 50바퀴 경주 등 두 종목으로 진행하였다. 천천히 자전거타기종목은 10m직선주로를 동시에 출발하여 단위

시간 안에 경기규정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 선수가 우승하게 된다. 50바퀴 경주는 당시 학교운동장이 넓지 못하여 학교에 근접한 공설운동장(현 충용아파트단지 일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당시 공설운동장에서는 잡초가 많고 지면이 고르지는 못하였으나 자전거경주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원을 넓게 하여 헛가루를 뿌리고 임의 트랙에서 50바퀴 경주를 하였다.

## 2) 양양중고 사이클 팀의 창단

1962년경에는 시대적으로 5·16이후 정부의 체육시책에 힘입어 이용 강원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도민 배 체육(道民 杯 體育)”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원도체육회를 새롭게 조직개편하고 강력한 체육시책을 실천하는 등 강원체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제1회 도내중고등학교 학생체육대회를 196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원주에서 개최하였는데 야구·탁구·자전거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양양중고등학교는 본 대회에 자전거경기를 출전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춘계교내체육대회 자전거경기에 입상한 성적을 기초하여 출전선수를 선발하였다. 단장에 이종세 교장, 감독에 신현택 체육교사, 선수에는 중학교에 전성국(2년), 고창주(2년), 신창오(2년) 3명과 양양고등학교 심기연(3년), 김근우(2년), 최원섭(2년) 3명으로 6명의 선수를 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공식적인 창단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 팀의 창단 계기가 되었다.



양양중고사이클 창단멤버(1962년)  
신창오, 고창주, 심기연, 김근우, 최원섭, 전성국



양양사이클 초대지도교사와 창단선수(2009년)  
김근우 신현택 교사 심기연

### 3) 학생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 (1) 제1회 도내중고등학교 학생체육대회 출전(1962년)

양양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경기종목을 출전하기로 하고 고등학교에 심기연(3년), 김근우(2년), 최원섭(2)선수와 중학교 전성국(2), 고창주(2), 신창오(2)선수를 출전하였다. 자전거 트랙경기는 원주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하고 대회시작 2일째(6월8일)자전거 도로경기는 원주시청 앞에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여 황성군 공근면 왕복 50km도로경기였다.

고등학교 선수들은 지나친 상호견제로 게임을 운영하다가 양양중학교 전성국 선수가 고등부선수보다 6분이나 단축하여 결승선에 있던 많은 관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표3-9〉 단체 종합전적(사이클)

부별	중 등 부		고 등 부	
	등 위	소 속	점 수	소 속 점 수
우 승	양양중	38점	양양고	23점
2 위	고성중	10점	원주고	23점
3 위	교대병설중	8점	춘천농고	10점

〈표3-10〉 50km 도로경기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전성국	양양중	1.39' 19"00	송익현	원주고	1.45' 17" 2
2위	윤성찬	고성중	1.40' 14" 5	심기연	양양고	1.45' 22" 3
3위	고창주	양양중	1.46' 20"00	김근우	양양고	1.45' 46" 3
4위	최일정	교대병중	1.50' 55" 8	송익현	원주고	1.45' 54" 00
5위	신창오	양양중	1.51' 18" 4	박민우	춘농고	1.46' 26" 00
6위	최수길	고성중	1.56' 17" 00	최원섭	양양고	1.47' 25" 00

〈표3-11〉 5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이주신	고대병중		정용섭	춘농고	
2위	고창주	양양중		송익현	원주고	
3위	최남수	소양중		이재수	고성고	

〈표3-12〉 1,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윤성찬	고성중		지용림	춘농고	
2위	고창주	양양중		김근우	양양고	
3위	이주신	교대병중		박민우	춘농고	

〈표3-13〉 3,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신창오	양양중		심기연	양양고	
2위	고창주	양양중		송익현	원주고	
3위	이주신	교대병설		김경순	고성고	

〈표3-14〉 5,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전성국	양양중	9' 04" 8	송익현	원주고	10' 41" 8
2위	윤성찬	고성중		심기연	양양고	
3위	신창오	양양중		이재수	고성고	

\* 위의 경기종목별 개인기록은 기록 자료가 없음.

## (2) 제2회 학생종합 체육대회 (1963년)

## 가. 학생종합 체육대회 출전전적

전년도 제1회 원주대회에 이어 1963년 제2회 도내학생체육대회가 7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춘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고등학교 김근우(3년), 최원섭(3년), 김봉수(1년), 손철갑(1년) 선수와 중학교에 전성국(3년), 고창주(3년), 신창오(3년) 선수가 출전하고 작년도 제1회 대회(1962년)에 출전하여 종합우승에 기여하였던 심기연 선수는 그해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동계훈련에 참가하게 되었고, 중앙대학 진학으로 사이클 일반선수로 활약하게 되었다.

이번 제2회 학생종합체육대회(1963년)는 고등학교 김근우 선수와 중학교 전성국 선수 등의 활약으로 제1회 대회에 이어 전 종목을 석권하여 종합우승함으로써 오늘의 전국 사이클 명문학교가 되는데 초석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 〈표3-15〉 5,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명	소속	기록	성명	소속	기록
1 위	전성국	양양중	9' 04" 2(대회신)	김근우	양양고	8' 29" F(대회신)
2 위	이상열	주문중	9' 22" F	김봉수	양양고	8' 29" 1(대회신)
※ 전년도 기록9' 04" 8 전성국(양양중)				※ 전년도 기록10' 41" 8 송익현(원주고)		

## 〈표3-16〉 1,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명	소속	기록	성명	소속	기록
1 위	전성국	양양중	1' 42" 8	김봉수	양양고	1' 45" 9
2 위	이상열	주문중	1' 43" F	김종완	양양고	1' 47" 5

## 〈표3-17〉 10,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명	소속	기록	성명	소속	기록
1 위	전성국	양양중	19' 11" F	김근우	양양고	19' 08" F
2 위	고창주	양양중	19' 54" F	신규섭	원주농고	19' 08" 2

(3) 제3회 학생종합체육대회(1964년)

가.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출전

전년도에 이어 제3회 학생체육대회가 1964년 5월14일~16일까지 3일간 춘천에서 23개 종목에 1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당일 14일 오전 9시20분에 출전임원선수들은 도청광장을 출발하여 춘천고 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으로 춘천종합경기장 대회장에 입장하여 박경원 대회장의 대회사를 통하여 학생체육 향상으로 체육 강원을 전국 상위권진입을 굳게 결의하였다.

양양 사이클은 중학교는 출전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김봉수, 손철갑, 전성국, 김종완 선수 4명만 출전하게 되었다. 양양 사이클은 제1회 대회부터 출전하여 2연패한 팀으로 본 대회 첫날부터 양양고 전성국 선수는 5천미터경기와 1만미터책임선두경기에서 기록을 단축하였고 5천미터경기에서 27초8, 1만미터경기에서 1분24초로 각각 단축하여 대회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사이클 트랙 장거리경주에서 경기주행 시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트랙의 홈 센터라인(본부석 방향)과 백 센터라인(본부석 반대편)을 선두로 통과하는 주자에게 책임선두를 부여하여 책임선두를 완료한 선수에게만 골인 순위순위가 인정된다. (위의 1만m 책임선두경기에서 2위 김봉수선수는 3위 서성경 선수보다 마지막 결승선에 3위로 골인하여 기록은 뒤졌지만 책임선두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2위가 되었다.)

〈표3-18〉 자전거경기 출전 실적

종목 등위	5,000m 경 기			10,000m 책임선두경기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전성국	양양고	8' 21" 3(대회신)	전성국	양양고	19' 08" F
2 위	김봉수	양양고	9' 12" 8	김봉수	양양고	19' 39" 9(책임선두)
3 위	정만화	원농고	9' 16" F	서성경	동광농	19' 39" 8

#### (4) 제4회 학생종합체육대회(1965년)와 양양 사이클 해체

제4회 학생종합대회는 1965년 5월16일~18일까지 3일간 춘천종합운동장에서 대회 첫째 날 트랙경기를 진행하였고, 대회 3일째 마지막 날에 자전거도로경기가 있었다.

이 대회에 양양고등학교는 전성국 선수가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어 출전하지 못하였고, 김봉수, 손철갑, 김종완 선수 3명만 출전하게 되었으나,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팀은 1962년 창단 이래 매년 우수한 경기력으로 연속하여 종합 우승을 유지해 왔었으나, 김봉수, 손철갑 선수 등이 졸업하고 후진 양성이 이어지지 못하여 1965년 제4회 대회출전을 마지막으로 창단 4년 만에 사이클 팀이 해체하게 되었다.

〈표3-19〉 제4회 학생종합체육대회 자전거경기실적(1965 양양고)

종목 등위	1000m 경기 결승			5000m 경기 결승		
	성명	소속	기록	성명	소속	기록
1 위	김봉수	양양고	1' 41" F	김봉수	양양고	9' 13" 8
2 위	황학구	춘천농	1' 49" 6	손철갑	양양고	9' 15" F
3 위	김종완	양양고	1' 51" 8	연재수	흥농고	9' 16" 7

종목 등위	1km 경기 결승			도로경기 결승		
	성명	소속	기록	성명	소속	기록
1 위	손철갑	양양고	20' 37" 8	손철갑	양양고	1.23' 25" F
2 위	연재수	흥농고	20' 37" 8	김봉수	양양고	1.32' 35" 2
3 위	김종완	양양고	21' 27" 8			

#### (5) 전국체전 입문한 양양 사이클(1963년)

##### 가. 양양고 출신 전국체전 첫 출전

1963년에 양양고등학교를 졸업한 심기연 선수는 일반부 강원도대표선수로 제44회 전국체전(전주)에 출전하여 40,000m 선두경기 2위, 10,000m속도경기 3위, 4,000m단체경기 4위 등 양양 사이클 체전사상 처음으로 일반부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어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인천)에 강원도대표선수로 출전한 양양 사이클 출신 심기연, 전성국 선수가 4,000m단체경기에 출전하여 경주운영에 주축이 되어 3위의 성적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성국 선수는 112km 개인도로경기에서 체전사상 핑크 난 사이클을 타고 50km나 독주하여 1위의 영광을 얻었다.

1965년 제46회 전국체육대회(광주)에서 양양출신 심기연 선수는 1,000m 경기에서 3위, 10,000m경기에서 2위에 입상하였다.

#### 나. 제45회 인천체전의 주인공이 된 양양 사이클(1964년)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 2년 만에 심기연, 전성국 선수는 제45회 인천체전에 강원도 일반부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체전 사이클경기 마지막 개인도로경기(112km)에서 각 시·도 출전선수 70여명은 인천시를 출발하여 수원을 왕복하는 경기에서 전성국 선수는 결승선 약 50km지점을 남겨놓고 타이어펑크로 고장 난 사이클을 타고 1위로 골인하여 우승하게 되었다. 강원도체육회는 물론 제45회 인천체전 스포츠 톱기사로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 다. 양양군민의 성원으로 경주용 사이클 지원

1964년 제45회 인천체전에 강원도대표선수로 112km 개인도로경기에 출전한 전성국 선수가 핑크 난 사이클을 타고 50km를 사력을 다하여 1위로 골인한 소식을 전해들은 양양군민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양양군체육회부회장으로 봉직하던 이흥경 양양면장은 읍내 몇몇 유지들과 뜻을 모아 전성국 선수에게 경기용 사이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내에 개인 업체와 기관 단체를 통하여 모금하게 되었다. 경기용 사이클이 고가품이라 당시 황소 한 마리를 팔아야 구입할 정도였으니 형편이 여의치 않은 선수들은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양양군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군민의 후원으로 프랑스에서 제작한 보라색 참피온 경기용 사이클을 구입하게 되어 사이클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군민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 4) 양양 사이클 팀 수난기(1965~1968년)

1962년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 멤버였던 심기연, 김근우, 최원섭 선수 등이 졸업한 후, 이어서 김봉수, 손철갑, 김종완, 전성국 선수 등이 사이클 전통을 이어 우수한 경기력을 유지해 왔었다. 당시 중학교 창단멤버였던 고창주 선수는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신창오 선수는 삼척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전성국 선수만 양양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양 사이클은 수난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사이클 창단 초대지도교사였던 신현택 교사는 배구전공출신으로 중학교 배구팀을 육성해 오다가 1964년 타 학교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1965년 양양중 배구팀은 제4회 도내학생종합대회에서 옥계중학교를 2:1로 물리친 전적도 있었으나 추후 어려운 여건으로 해체하게 되었다.

양양고등학교에 새로 임명된 김관옥 교사는 농구출신으로 사이클 명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1968년까지 핸드볼 팀을 육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양 사이클은 적극적인 팀 관리부실과 그동안 신인발굴이 이어가지 못하고 1964년부터 중학교는 사이클 선수고 갈로 인하여 중학교 사이클은 출전전적이 전무하였다.

1965년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팀 또한 제4회 학생종합체육대회에 김봉수, 손철갑, 김종완 등 3명의 선수를 마지막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양 사이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1965년 힘겨운 수난기로 결국 창단 4년 만에 해체되게 되었다.

#### 5) 양양 사이클 재 창단 배경(1969~1971년)

1962년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초창기 창단 선수로 양양 사이클 명문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김근우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모교에 체육교사로 발령되었다. 그간 사이클 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체되었고, 농구출신 체육교사가 부임하면서 사이클 명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핸드볼 팀을 육성하였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사이클 전통 명문고장에 모교출신 전공 교사가 부임하였으니 사이클을 육성하여 다시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주변 인사들과 동문들의 권유로 김근우 교사는 부임 1년 만에 1969년 3월에 사이클 팀을



양양 사이클 재 창단 멤버(1969년)  
김근우감독, 장충남, 김동일, 정형교, 유우영선수

재 창단하여 사이클 해체된 지 4년 만에 양양 사이클을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재 창단팀 구성은 단장에 이규택 교장, 지도교사 감독 겸 코치에 김근우 지도교사, 선수에 장충남(3년), 김동일(2년), 유우영(2년), 정형교(1년), 김규화(1년) 등 5명의 선수로 창단하게 되었다.

### (1)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처녀출전(1969년)

1967년 제48회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고등부 사이클 종목이 채택 된지 2년 후, 그동안 해체되었던 양양고 사이클이 1969년에 재창단하여 열악한 훈련조건과 짧은 훈련기간이었지만 지도자와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4년 만에 재 창단한 양양 사이클은 1962년 창단초기에 도내 전 종목을 4년 연속 석권하였던 양양 사이클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나는 훈련을 하였다.

양양고 사이클은 1969년 재(再) 창단하던 그해 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 처녀출전하게 되었다. 강원도대표 팀 구성은 감독 겸 코치에 김근우 교사, 출전선수에 장충남(3년), 김동일(2년), 유우영(2년), 정형교(1년)선수(이상 양양고), 조희열(강릉상고), 김영일(춘천) 등 고등부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게 되었다.

대회 2일째인 11월1일 서울육상경기장(동대문운동장)에서 고등부 1,600m 속도경기에 출전한 김동일(2년) 선수는 전국규모대회 시합경험도 전혀 없는 우리 팀으로서는 기록 같은 3위의 성적을 거두어 양양고 재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양양고 사이클 역사상 체전 첫 입상기록이었다.

〈표3-20〉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전적(1969년)

고등부 1,600m 결승		
등 위	선 수 명	기 록
1위	한성일(경북)	2' 34" F
2위	김승일(경북)	2' 34" 1
3위	김동일(강원) 양양고	2' 34" 3

※ 전국체전 고등부 사이클 양양고 창단 최초 입상전적(1969 김동일)

※ 전국체전 고등부 사이클 종목 채택(1967 제48회 체전 정식종목 채택)

## (2)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양양 사이클 출전(1970년)

지난 대회에 이어 전국체전 강원도 고등부 사이클 대표선수로 양양고등학교가 선발되어 김근우 감독교사 김동일, (정형교), 유우영, 김규하, 문상묵 선수 등이 출전하게 되었다. 이번 전국체전도 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사이클 트랙경기는 동대문육상경기장 400m트랙에서 진행되었다. 양양 사이클은 트랙경기 첫날(10월9일) 4,000m단체경기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강원도 팀은 양양고 김동일 선수의 활약으로 전북 팀과 공동3위를 하였고, 일반부 1,600m속도경기에서 양양고 출신 전성국선수가 3위를, 이어서 고등부 1,600m속도경기에서 양양고 김동일 선수가 2' 38" 7의 기록으로 3위를 하였다.

다음날(10월10일) 4,800m속도경기에 출전한 김동일 선수는 8' 03" 6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2위에 입상하였다. (제48회 전국체전 황보연 선수 기록 8' 07" 1을 갱신)

〈표3-21〉 제51회 전국체전 강원도 대표 양양 사이클 출전전적(1970년)

등 위	고등부 4,000m 단체경기 (10월 9일)	일반부 1,600m 속도경기 (10월 9일)		
1 위	충남	김광선(서울)	2' 38" 7	
2 위	경기	김명남(경기)	2' 38" 9	
3 위	강원(양양고), 전북 공동	전성국(강원) 양양사이클	2' 39" 2	
등 위	고등부 1,600m속도경기(10월9일)		고등부 4,800m속도경기(10월10일)	
1 위	노해수(경북)	2' 37" 8	노해수	8' 03" 2 대회신
2 위	김인용(경북)	2' 38" F	김동일(강원) 양양고	8' 03" 5 대회신
3 위	김동일(강원) 양양고	2' 38" 7	최현일	8' 03" 6

이와 같이 전국체전에 강원도대표로 출전한 양양 사이클은 제51회 체전부터 강원 사이클이 5년 연속 전국제패의 강원 사이클 신화를 이룩하는데 주축이 되었다.

전국체전 5연패의 강원 사이클의 기록은 1970년 제51회 체전부터 1974년 제54회 체전까지의 종합우승의 주역은 양양 사이클이었다.

### (3) 전국사이클경기대회 출전(1971년)

1971년 5월2일~3일까지 양일간에 전국사이클경기대회가 속초시 공설운동장과 주변 도로에서 트랙경기와 80km개인도로경기가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각 팀 소속으로 고등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출전하였다.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사이클 종합우승을 배경으로 강원도사이클경기연맹 이인중, 이춘봉, 박광평 이사 등 임원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특별히 속초시 사이클 대부로 양양 사이클 창단초기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해 온 함흥냉면 이석봉 사장의 각별한 유치활동의 결실이었다.

전국규모 속초사이클경기대회는 대회인지도가 낮고 대회유치지역이 먼 관계로 참가 규모가 적었다. 대회 첫날에는 트랙경기에 이어 다음날 도로경기가 진행되었다.

〈표3-22〉 일반부트랙경기(5월2일)

종목 등위	1600m속도경기		4800m속도경기		10000m속도경기		80km도로경기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1위	석춘봉(경희)	2' 57" 4	석춘봉(경희)	7' 13" 3	차용산(경기)	15' 02" 4	전성국(삼양)	2.12' 06" 5
2위	김광선(철성)	2' 57" 5	전성국(삼양)	7' 13" 6	전성국(삼양)	15' 06" F	권중현(부산)	2.12' 06" 6
3위	전성국(삼양)	2' 57" 8	김창림(춘천)	7' 14" F	노해수(대구)	15' 14" 1	이영규(경기)	2.15' 12" 8

〈표3-23〉 고등부트랙경기

종목 등위	800m속도경기		1600m속도경기		4800m속도경기		600m속도경기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1위	김동일(양양고)	1' 17" 6	김동일(양양고)	2' 39" 4	유우영(양양고)	9' 20" 1	김동일(양양고)	11' 01" 1
2위	임일봉(대전공)	1' 18" F	임일봉(대전공)	2' 39" 8	김동일(양양고)	9' 20" 3	임일봉(대전공)	11' 01" 4
3위	유우영(양양고)	1' 18" 4	정형교(양양고)	2' 40" 5	정형교(양양고)	9' 20" 7	유우영(양양고)	11' 01" 8

※ 일반부 전성국선수 (양양사이클 출신으로 삼양항해 소속)

### 6) 전문지도자 영입 새 활로 모색(1972~1982)

제52회 전국체전에서 참패한 양양 사이클은 전문지도자가 없으면 결코 경기력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 당국은 지도코치를 선임하기로 하고 당시 속초실고 사이클을 지도하던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출신 심기연 코치를 1972년 3월 1일자로 영입하게 되었다. 전문지도자를 영입한 양양 사이클은 1972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게 되었다. 활기를 다시 찾게 된 양양 사이클은 1973년부터 1979년 7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고등부 7연패의 사이클의 신화를 기록하였다.

〈표3-24〉 전국체육대회 양양고 경기실적(1973년~1982년)

년도	대회명	개최지	종목	등위	선수명	기록	비고
1973	제54회 전국체전	부산	800m	1위	방양호	1' 11" 7	
			4000m단체	2위	방양호	7' 39" 2	
1974	제55회 전국체전	서울	800m	2위	방양호	1' 06" 7	
			4800m	2위	방양호	7' 32" 7	
			20000m선두	2위	석대회	56점	
1975	제56회 전국체전	대구	10000m	1위	김창주	15' 04" 8	
			20000m선두	2위	김창주	-	
			4000m단체	1위	김창주	7' 31" 3	
1976	제57회 전국체전	부산	4000m단체	1위		5' 36" F	
1977	제58회 전국체전	광주	10000m	1위	강원남	-	
				2위	노승준	-	
			4800m	3위	김남호	-	
			20000m선두	2위	심종석	71점	
			4000m단체	1위	심종석, 강원남 노승준, 김남호	5' 32" 2	
1978	제59회 전국체전	인천	800m	1위	장윤호	1' 07" 4	
			10000m	1위	심종석	15' 57" 3	
			20000m	3위	강원남	-	
			4000m단체	1위		5' 30" F	대회신기록
1979	제60회 전국체전	대전	800m	1위	김형국	1' 04" 7	
			4800m	1위	장윤호	31' 31" 7	
			4000m단체	1위	강원		

년도	대회명	개최지	종목	등위	선수명	기록	비고	
1980	제61회 전국체전	전북	* 전 종목 입상실적 없음					
1981	제62회 전국체전	서울	1600m속도	2위	이인형	2' 53" 39		
			1000m독주	3위	이인형	1' 20" 72	대회신기록	
			4800m속도	3위	안우혁	7' 10" 54		
			4000m단체	3위	이인형 안우혁	5' 37" 73		
1982	제63회 전국체전		* 전 종목 입상실적 없음					

### 7) 전성기를 맞이한 양양고 사이클(1993년~2002년)

#### (1) 모교 사이클 출신 감독코치의 지도열정

전성기 초기에 지도감독인 박순원 감독교사는 1991. 3. 1일자로 양양고에 임명되어 1996년 3월 1일자로 타교로 전출되었다가 1998년 3월에 부임하면서 다시 사이클 지도 감독을 맡게 되었다. 1996년 박순원 감독 후임으로 박선규 지도교사와 이상균 선생이 각각 1년 지도교사로 임직 후, 1998년 박순원 선생의 모교발령으로 다시 사이클 지도 교사를 맡게 되었고, 허용봉 코치는 1992년 12월 1일자로 임명되어 1999년 7월까지 양양 사이클 전성기에 최선의 열정을 다하였다. 10년간 양양고 사이클 전성기를 통하여 전국을 제패한 지도공적으로 박순원 감독교사는 2001년~2002년도 2회에 걸쳐 최우수 감독상을 받게 되었다.



제4회 아시아주니어사이클대회(1995년)



제75회 전국체전 개인도로경기(1994년)

〈표3-25〉 전국체육대회 양양고 경기실적(1973년~198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93. 6.	제10회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경기 대회		3km개인추발	3위	윤양석	-	
			4,000m단체추발	1위	황남식 윤양석 정동석 박수환	-	
			제외경기	2위	황남식	-	
			1,000m일제경기	1위	정동석	1' 21" 43	
			30km포인트	1위	윤양석	-	
1993. 10.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4,000m단체추발	1위	황남식 윤양석 정동석 박수환	4 '45" 01	
			3km개인추발	3위	윤양석	-	
			30km포인트경기	1위	황남식	-	
			89.1km개인도로	1위	정동석	-	
1994. 7.	제11회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경기 대회	전주	스프린트	1위	정동석	-	
			1km독주	1위	윤양석	1' 11" 49	
			3,000m책임선두	1위	박수환	-	
			4,000m단체추발	1위	정동석 윤양석 박수환 김정영	4 '42" 40	
			20km포인트경기	1위	정동석	23' 42" 12	18점+2
			개인도로경기	3위	정동석	-	
1994. 10.	제75회 전국체육대회	대전	1,000m일제경기	3위	강경화	1' 47" 07	
			94km개인도로	1위	양윤석	3.01' 50" 33	
				2위	박수환	3.01' 50" 45	
				3위	김정영	3.08' 18" 45	
			제외경기	1위	정동석	12' 17" 57	
			1km독주	3위	양윤석	1' 12" 624	
			km포인트경기	3위	양윤석	16점	
4,000m단체추발	1위	양윤석 박수환 정동영 강경화	-				
1995. 4.	제4회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선수권대회	마닐라	4,000m단체추발	1위	박수환	-	
			94.8km개인도로	1위	박수환	2.41' 39" 90	
			제외경기	2위	김정영	-	
			3km개인추발	3위	박수환	-	
1995. 10.	제76회전국체육대회 양양고 종합우승	대전	30km포인트	1위	박수환	39점	
				2위	김정영	25점	

년월일	대회명	개최지	종목	등위	선수명	기록	비고
1995. 10.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양양고 종합우승	대전	110.4km개인도로	1위	김정영	2.44' 02" 77	
			3km개인추발	1위	박수환	3' 51" 94	
			4,000m단체추발	2위	박수환 김정영 이길섭 고병수 장일남	4' 48" 572	
			제외경기	3위	김정영	-	
1996. 6.	제13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음성	1km독주	3위	고병수	1' 10" 978	
			제외경기	3위	이길섭	-	
			30km포인트	1위	장일남	43점	
1996. 10.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춘천	4,000단체추발	3위	고병수 장일남 이길섭 신창호	-	
			30km포인트	2위	장일남	43점	1위 42점
1987. 6.	제1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대항 사이클경기대회	서울	개인도로단체	2위	이인섭 김현승 김영철 신경섭	-	
1998.9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제외경기	3위	김시국	-	
1999. 5.	제1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서울	제외경기	2위	김시국	-	
			개인도로단체	3위	신경섭 김영철 노도엽 김현승	10.00' 53" 14	
1999. 8.	8·15경축 전국거제 도로사이클경기대회	거제도	개인종합	우승	신경섭	-	
			단체종합	우승	양양고	-	
2000. 5.	제2회 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도로경기대회	가평 ~양양	도로단체종합 총 475.3km	우승	양양고	38.26' 40" 16	고성
2000. 6.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나주	121.2km개인도로	3위	김현승	2.56' 17" 80	
			개인도로단체	3위	김현승 김경록 노도엽 신경섭	8.52' 01" 09	
2000. 7.	제2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대전	4,000m단체추발	2위	신경섭 김영철 김경록 주윤호	4' 45" 157	
			메디슨경기	1위	김현승 신경섭	26점	
			55.2km크리테리움 단체경기	3위	김현승 신경섭 김영철 김경록	4.09' 00" 00	
			116km개인도로	1위	김현승	2.42' 49" 00	우수상
			116km개인도로 단체	1위	김현승 신경섭 김영철 김경록	8.09' 59" 00	
			단체종합	준우승	양양고	34점	
2001. 6.	제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나주	책임선두경기	1위	김경록	-	
			메디슨경기	1위	노도엽 주윤호	-	
			24km포인트	1위	김동영	29점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2001. 6.	제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나주	96km크리테리움	2위	노도엽	-	
				3위	주윤호	1.59' 19" 35	
			96km크리테리움 단체	1위	노도엽 김경록 주윤호 김동영	5.58' 15" 00	
			단체종합 준우승	양양고	-		
2002. 6.	제1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나주	메디슨경기	1위	주윤호 김동영	26점	
2002. 11.	제83회 전국체전	제주	메디슨경기	2위	주윤호 김동영	46점	
			도로독주	3위	김도영	33' 33" 14	

### 8) 양양여자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1983년)

한국 사이클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사이클경기연맹(UCI)으로부터 제23회 LA올림픽대회(1984년)에 여자 사이클 종목이 채택되자 국내에서도 여자 사이클 종목을 신설하여 1983년 제64회 인천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사이클 종목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에 양양여자고등학교는 1983년 2월에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사이클 육성학교로 지정받고, 3월 15일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이클의 고장 양양'에 여고 사이클 팀을 창단하게 되었다. 양양여고 사이클 팀은 단장에 권덕명 교장, 감독 김철홍 교감, 지도교사 전운섭 체육교사, 지도자 노승준 코치(양양고 사이클 선수출신이며 한국체육대학을 졸업) 선수 김정임(주장), 박선미, 김난희, 박춘심, 박미경, 김미자(이상 2년), 정순옥, 이춘희, 김미옥, 김명숙(이상 1년) 등 10명으로 구성하였다.

〈표3-26〉 양양여고 사이클 주요대회출전 전적(1983~199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83. 9.	주니어도로선발	통일로	48km개인도로	1위	김정임	1.20' 55" 62	창단첫출전
				5위	박선미	1.20' 55" 87	
1983.10.	제12회회장배 국제파견선발		3,000m단체추발	2위	박선미 김난희 정순옥 김정임	4 '35" 09	한국신기록
1983.11.	국제대회파견 여자선수선발	통일로	50k개인도로	3위	김정임	1.28' 02" 89	
				5위	박선미	1.28' 03" 24	

년월일	대회명	개최지	종목	등위	선수명	기록	비고
1984. 10.	제65회전국체전	대구	1,000m개인독주	3위	박선미	1' 23" 82	대회신기록
			70km개인도로	1위	김난희	2.14" 01	
				3위	김정임	2.14' 02"	
1985. 5.	제2회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의정부	제외경기	1위	정순옥	-	
1987. 3.	제15회 회장배 전국사이클대회	서울	3km개인추발경기	1위	최미화	4' 22" 12	대회신기록
1988. 5.	제5회대통령기 제69회 전국체전	서울	3000m단체추발	3위	정미경 고진숙 김옥선 장경아	3' 59" 36	
1989. 5.	제6회대통령기	서울	제외경기	1위	김옥선	3' 40" 37	
1989. 9.	제18회 체육부장관기검 제15회 전국학생종별	춘천	1km독주	1위	장경아	1' 22" 07	종합우승
			3km개인추발	1위	장경아	4' 19" 23	
			3,000m단체추발	1위	김옥선 장경아 이미숙 노선실	4' 05" 09	
			54.3km개인도로 종합단체	3위	김옥선 이미숙 노선실 김금미	5.28' 09" 04	도로종합 1위(32점)
1989. 9.	제70회전국체전	의정부	스프린트	3위	김옥선	14" 34 14" 80	
			3km개인추발	2위	장경아	4' 24" 20	
			3000m단체추발	3위	김옥선 노선실 이미숙 장경아	-	추월승
1990. 10.	제19회 체육부장관기 전국사이클 경기대회	서울	스프린트	1위	노선실	13" 43 13" 44	종합우승
			1km독주	2위	노선실	1' 20" 780	(42점)
			3km개인추발	1위	김금미	4' 27" 05	
				2위	이미숙	-	
			3000m단체추발	1위	김금미 노선실 이미숙	4' 04" 56	대회신
제외경기	1위	이미숙	5' 54" 23				
1990. 5.	제20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사이클 경기대회		스프린트	2위	노선실	12" 70(예선)	대회신
			3km개인추발	3위	이미숙	4' 26" 47	종합준우승
			3,000m단체추발	2위	노선실 이미숙 김명자 조한희	4' 02" 81	대회신
1991. 7.	제8회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서울	스프린트	2위	노선실	-	
			1km독주	3위	노선실	1' 20" 606	단체종합 3위(42점)
			제외경기	3위	이미숙	9' 45" 77	
1991. 10.	제72회전국체전	전주	스프린트	1위	노선실	14" 03 13" 93	시도종합 강원2위

년월일	대회명	개최지	종목	등위	선수명	기록	비고
1991.10.	제72회전국체전	전주	1km독주	3위	노선실	1' 20" 758	1883점
			3km개인추발	3위	이미숙	4' 27" 35	
			3,000m단체추발	3위	김명자 노선실 이미숙 조한희	4' 07" 43	
			597km개인도로	3위	이미숙	1.44' 13" 62	
1992. 6.	제9회대통령기		1km독주	3위	김명자	1' 22" 026	
			3km개인추발	3위	박영미	4' 21" 34	
1992.10.	제73회전국체전	대구	3km개인추발	3위	박영미	4' 25" 43	종합 3위 1441점
			3000m단체추발	2위	김명자 박영미 조한희	4' 09" 80	
			57,2km개인도로	2위	김명자	2.07' 25" 13	
1994. 8.	제23회 문체부장관기		스프린트	2위	김미건	-	
			1,000m일제경기	3위	신승희	-	
			3,000m단체추발	2위	김미건 신승희 김명희 최명순	-	
1995.10.	제76회전국체전	서울	3,000m단체추발	3위	김미건 신승희 김명희 최명순	4' 09" 08	
1997.10.	제78회전국체전	창원	2,000m 포인트	2위	양은주	29점	
1998. 9.	제79회전국체전			1위	양은주	-	
				2위	양은주	-	
				3위	양은주	-	

### 9) 양양군청 여자 사이클 팀 창단

강원도체육회의 실업팀 육성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는 '강원 사이클 메카인 양양'에 양양군청 여자실업 팀이 1991년 1월17일 창단하였다. 양양군청 여자사이클 팀은 이영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감독 겸 코치에 방양호(당시 35세)코치, 선수에 장경아(18세), 고진숙(21세), 김복림(20세) 등 3명으로 구성하였다.

양양군청은 창단초기 코치에 양양고 사이클 출신(전 국가대표)으로 양양여고 사이클 팀을 지도하던 방양호 코치를 영입하면서 양양여고 출신 우수선수 3명을 창단선수로 입단하게 되었다.

〈표3-27〉 양양군청 사이클 주요대회 출전전적(1991년~199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수명	비 고
'91. 9.16.	제15회아시아 사이클경기대회	중국	3,000m추발단체	2위	장경아	국제시합
			3km개인추발	3위	장경아	
'91.10. 8.	제72회 전국체전	전주	3km개인추발	3위	장경아	
'92.10.11.	제73회 전국체전		3km개인추발	3위	장경아	
'94. 7.11.	제11회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		35.7km	3위	김옥선 김경자 이행연	
			15km	3위	김옥선 김경자 이행연	

### 10) 양양군청 남자 사이클 팀 재 창단(1996년~2002년)

양양군청 여자 사이클 팀은 창단 6년 만에 해체하고 1996년 12월 31일 양양군청 팀은 남자일반부로 재 창단하여 팀을 한층 강화하였다. 팀 구성은 1992년에 양양군청 팀 코치에 임명된 박상택 코치를 유임하고, 1km 독주 전국최우수선수 지성환 선수를 비롯하여 양양고 출신 우수선수인 엄인영 · 김정영 · 고봉수 · 이길섭 등 선수 5명을 영입하여 재창단 하였다.

〈표3-28〉 양양군청 전국주요대회 출전전적(1996년~200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수명	기 록
1998. 5.11.	제7회청주MBC배 사이클대회	음성	1km독주	1위	지성환	1'05"06 한국신
1998. 7. 6.	제15회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4,000m 단체추발	1위	지성환 엄인영 김정영 고병수	-
			올림픽 스프린트	1위	고병수	-
1998. 9.21.	제79회전국체전		1km독주	1위	지성환	-
1998.12. 6.	제13회 아시안게임	태국	1km독주	1위	지성환	-
1999. 5.10.	제16회대통령기 전국사이클		개인도로단체	1위	박수환 엄인영 지성환 고병수	-
			메드슨경기	1위	고병수	-
1999. 6. 6.	제1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km독주	1위	지성환	1'03"895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수명	기 록
1999. 9. 13.	제80회전국체전		1km독주	1위	지성환	-
2000. 4. 9.	제9회청주MBC사이클	음성	올림픽 스프린트	1위	고병수 엄인영	-
			포인트경기	1위	박수환	-
2000. 5. 15.	제2회 국민체육 이사장	서울	개인도로	1위	박수환	-
			4,000m단체추발	2위	박수환 엄인영 고병수	
2000.10.13.	제81회전국체전		1km독주	1위	지성환	-
2001. 4. 9.	제10회 청주 MBC사이클	음성	스프린트	2위	현병철	-
			경륜경기	1위	엄인영	-
2001. 5. 3.	제3회 국민체육이사장	서울	스프린트	2위	현병철	-
2001.10.10.	제82회전국체전		경륜경기	3위	엄인영	-
2002. 4. 9.	제11회 청주MBC사이클	음성	경륜경기	1위	현병철	-
2002. 5. 5.	제4회 국민체육이사장	서울	경륜경기	1위	엄인영	-
			1,000m경기	1위	현병철	-

### 11)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1962년에 창단한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과 1983년 양양여자고등학교와 1991년에 창단한 양양군청 실업 사이클 팀을 통하여 배출한 양양 사이클이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록하였다.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은 1962년도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 등 6명의 선수로 창단하여 2009년 현재 47년간에 걸쳐 총 134명의 사이클 선수를 배출하면서 국가대표 18명, 주니어대표 17명으로 전국 최다수 선수를 배출한 양양고 사이클과 양양여고와 양양군청팀과 더불어 한국 사이클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3-29〉 양양고 사이클 선수배출현황(1962년~2009년)

구 분	성 명	졸업년도	비 고
9회	심기연(국가대표)	1963	
10회	김근우 최원섭	1964	
12회	손철갑 김봉수	1966	
13회	전성국(국가대표) 김종완(양양중 창단선수)	1967	고창주 신창오
17회	장충남	1971	
18회	김동일 유우영	1972	
19회	정형교 김규화 문상묵	1973	

구분	성명	졸업년도	비고
20회	김영화 이상균	1974	
21회	방양호 석대해(이상 국가대표) 박순원 고팡석 남승희	1975	
22회	김창주 이상익	1976	
23회	김종백 김영학	1977	
24회	김남호 노승준 송순호 박상만	1978	
25회	강원남 심종석	1979	
26회	장윤호(국가대표) 박상택 김남수	1980	
27회	김형국 김규근(이상 국가대표) 황윤근	1981	
28회	안우혁(국가대표) 이인형	1982	
29회	김규성 김영철 용장순	1983	
30회	김종석 박춘웅(이상 주니어대표)허용봉 김대식 최근덕	1984	
31회	추성호 김상규 김형정 김동현 허윤영	1985	
32회	김명종 심상천	1986	
33회	박선규 장양식 천병관 지용운	1987	
34회	박낙현 용창화 이광은 김지형	1988	
35회	장석삼 김영철 임태우 강종철 이교덕	1989	
36회	엄인영(주니어·국가대표) 김주철 이인덕 박상선 이호식	1990	
37회	박계준(주니어·국가대표) 박중표 박병천 김동학 최기혁	1991	
38회	최희동(주니어·국가대표) 김성윤 정익수 송세진 김성영 김용수 정진화	1992	
39회	김기남 박춘복 김규연	1993	
40회	이형우 황남석 박인원 최진호	1994	
41회	윤양석(주니어·국가대표) 정동석 강경화	1995	
42회	박수환(주니어·국가대표) 김정영(주니어대표) 이천환	1996	
43회	김충환 김광한	1997	
44회	장일남(주니어·국가대표) 고병수(주니어대표) 이길섭 차호열	1998	
45회	장배규	1999	
46회	김시국 이인섭 김성수 고승모	2000	
47회	김현승 김영철 신경섭	2001	
48회	노도엽 김경록	2002	
49회	김동영(주니어·국가대표) 주윤호(주니어대표) 노승용	2003	
50회	정영교(주니어대표) 백창무	2004	
51회	김철수(주니어·국가대표) 전영재 이범석	2005	
52회	김성태(국가대표) 심원규(주니어대표) 이기호 박용학	2006	
53회	김영식 라정욱 임기동 김성규 이주권	2007	
54회	정충교(주니어·국가대표) 이경호(주니어대표)	2008	
55회	이상규 김동석 김대건	2009	

선수배출 총 인원 : 134명 대표선수:18명 주니어대표선수 17명

## 7. 양양 사이클 국제대회 출전전적

〈표3-30〉 양양고 사이클 출신 경기실적

년도	대 회 명	개최지	선수명	종 목	등 위	기 록	비 고
1970	제6회 아시안게임	방콕	전성국	100km 도로단체	동메달		
1972	제7회 아시아선수권		전성국	100km 도로단체	금메달		
1982	제9회 아시아선수권	방콕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금메달		
1982	제9회 아시안게임	뉴델리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금메달		아시아 신기록
1983	제10회 아시아선수권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은메달		
1984	"84 LA올림픽대회	LA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출전		
1986	제10회 아시안게임	서울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은메달		
1986	제10회 아시안게임	서울	안우혁	4km 개인추발	은메달		
1994	제13회 아시아선수권		엄인영		동메달		
※ 1995	제 4회 아시아주니어	마닐라	박수환	4000m 단체	금메달		종합우승
			김정영	4000m 단체	금메달		
			박수환	개인도로(98km)	금메달		
			김정영	제외경기	은메달		
1999	제14회 아시아선수권		엄인영	경륜경기	동메달		
2000	시드니 올림픽대회		엄인영	경륜경기	출전		올림픽최초채택

※ 1995년 제4회 아시아주니어 사이클경기대회는 양양고 재학 사이클 선수 경기실적임.

〈표3-31〉 양양군청 사이클 출전전적

년도	대 회 명	개최지	선수명	종 목	등 위	기 록	비 고
1991	제15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	북경	장경아	4,000m단체추발	은메달		
			장경아	4km개인추발	동메달		
1998	제13회 방콕아시아경기	태국	지성환	1km독주	금메달		
1999	제19회 아시아사이클 선수권		지성환	1km독주	금메달	1'03"895	아시아신기록
2006	홋카이도 국제도로사이클	북해도	심완규외4명	4구간단체	동메달		
2007	투르드 코리아 국제도로사이클	한국	김성태외4명	도로단체	동메달		

## 8.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표3-32〉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구분	성명	지도경력/ 학문 스포츠 단체 기여
양양고 9회	심기연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1962) 전국체전 일반부 사이클 양양 사이클 최초입상자(1963) 국가대표(1963)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코치(1972~1985) 전국체전 7년 패 지도공적(1973~1979) "86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사이클 코치(1984)
양양고 10회	김근우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1962)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감독(코치)(1969~1971) 한국체육대학교 사이클 지도교수(1984~2003) 한국체육발전공로표창(대한체육회장 김종하 1988) 한국교육발전(체육)공로표창(대통령 1991) 대한사이클연맹 이사(1985~1988) · 총무이사(1994~1996) 제10회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경기행정담당관(1986) "87 서울국제사이클경기대회 경기행정담당관(1987) 제24회 "88서울올림픽 경기행정담당관(1988) 제13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본단 임원(한국 종합2위)(1998)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지도실적(개인도로 김경숙, 신대철 금메달 한체대(1986) 문교부(체육고등학교 1종도서) 사이클경기(1994) 외 체육도서 저서 4편 스포츠관련 논문 : 학위논문 외 19편
양양고 13회	전성국	양양중학교 사이클 창단선수(1962) 국가대표(1968~1976) 제6회 "70 방콕아시아경기대회출전 100km도로단체 동메달(대통령 체육포창 1970)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00km도로단체 금메달(1972) 제10회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경기운영담당관(1986) 제24회 "88서울올림픽 경기심판(1988) 강원 도청 사이클 감독(1979~1982) · 한국통신공사 사이클 감독(1982~1996) 대한사이클연맹 시설 · 심판 · 경기이사(1982~1995) · 전무이사(1995~1996) 한국실업사이클연맹 부회장(1996~1997) 제11회 "90북경아시아경기대회 사이클 총감독(대통령체육포창)(1990)
양양고 18회	김동일	양양고 사이클 팀 재 창단 선수(1969) 전국체전 고등부 사이클 양양고 최초입상자(1969) 양양고 사이클 동문회 초대회장(1997~2003) 강원도사이클연맹 상임부회장(2000~2009현)
양양고 21회	박순원	양양고 사이클 감독(1998~2003), (2008~2009현) 강원도체육상 수상(1993) 제75회 대전 전국체전 고등부 개인도로(94km) 1~4위 양양고 석권(1994) 제4회 마닐라 아시아주니어 사이클 대회 감독(종합우승)(1995) 양양군체육문화상 수상(1997) 최우수 감독상 수상(대한사이클연맹) (2001~2002) 강원도사이클연맹 전무이사 · 부회장(2009~현)

구분	성명	지도경력/ 학문 스포츠 단체 기여
양양고 21회	방양호	국가대표(1974) 양양여고 사이클 코치(1989~1990) 양양군청 사이클 감독(1991~1992) 강원도사이클연맹 전무이사(1991~1994) 양양군사이클연맹 회장(2008~현)
양양고 26회	장윤희	국가대표(1980~1988) 제10회 방콕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100km도로단체 금메달(1980) 제9회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 100km도로단체경기 금메달(아시아신기록)(1982)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00km도로단체 은메달(1983) LA 올림픽대회 출전(1984) 제10회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100km도로단체경기 은메달(1986) 기아자동차 사이클 코치(1988) 대한지적공사 코치, 감독(현) (2006~2009 현) 제13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대표감독실적 장선재 3관왕·한국우수선수상 수상(2006) 국가대표 사이클 중장거리 감독상 수상(청용장 2006·백마장 2008)
양양고 26회	박상택	양양고 사이클 코치(1990)·양양군청 사이클 감독(2009 현) 제3회 아시아주니어 사이클 감독(종합우승)(1991) 제7회 청주MBC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지도감독 1km독주 지성환 1위(1'05"6) 한국 신기록(양양군청)(1998) 제13회 "98방콕아시아경기대회 1km독주 지성환 금메달(양양군청) (1998) 제19회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 1km독주 금메달(아시아신기록 1'03"895)(양양군청) (1999) 강원도사이클연맹 전무이사(2009~현)
양양고 28회	안우혁	국가대표(1982) 5000m속도경기 한국 신기록(6' 58"61) (1983) "86서울아시아게임 4km단체경기 은메달(한체대, 국군체육부대) (1986) 제11회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 4km단체추발 금메달(1983)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 감독교사(1991)
양양고 30회	허용봉	사이클 코치(양양고, 서울체고, (1992~2002) 국가대표 코치(주니어·시니어대표) 제75회 전국체전 금메달 3, 개인도로경기 1~4위 양양고 석권 지도코치(1994) 제11회 대통령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금메달 9개 입상(11개 종목) 지도코치(1994) 제10회 방콕 아시아주니어 사이클 선수권대회 지도코치(2002) 제23회 창원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지도코치(2003)
양양고 36회	엄인영	국가대표 (1997) 서울체육고등학교 사이클 전임코치(2006~2009 현) 제12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동메달 (대통령 표창) (1994) 전국체육대회 금 7, 은 3, 동메달 6개 입상(스프린트 3연패) 제19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올림픽 스프린트 은메달·경륜경기 동메달(1999)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륜경기 최초출전(2000)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편(2008)

# 襄陽郡誌

襄陽郡誌編纂委員會

## ■ 편찬위원회

위원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부위원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장
위원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이상집	속초양양 교육장
	김양수	강원도의회 의원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최종덕	한국예총양양군지부 회장
	김원래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오한석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감사	김양식	전 강원도 관광협회 부회장
간사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서기	이정미	

## ■ 집필

위원장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민속문화)
위원	이상수	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선사시대)
	전유길	양양군청 학예연구사(오산리선사유적, 천주교)
	박도식	관동대학교 사학과 교수(삼국·고려·조선)
	이철휘	고등학교 교사(3·1운동과 근·현대사)
	엄경선	설악신문 프리랜서기자(근·현대 인물사)
	홍문표	경동대학교 외래교수(기후환경)
	김형섭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동·식물)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양양산불, 산업)
	김성영	전 양양남대천보존회장(남대천)
	박홍식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
	사득환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행정)
	윤경호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과 교수(농업)
	박용진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임업)
	진덕희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명공학부 교수(수산)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제)
	김건석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광업)
	김무림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언어)
	이한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민속신앙)
	최혜정	강릉영동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의생활)
	황재희	강릉영동대학 호텔조리학과 교수(식생활)
	정재국	관동대학교 건축과 교수(주생활)

엄창섭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문학)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양학부 교수(한문학)  
 함영문 (사)아시아 지역문화 연구원(사진)  
 최영철 경동대학교 건축과 교수(유형문화재)  
 고경재 전 양양문화원장(지명유래)  
 김진하 현남면장(금석문, 재난·재해)  
 최창섭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  
 정영호 단국대학교 박물관장(불교)  
 박양자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유교)  
 이재풍 양양문화원향토사연구원(기독교, 성씨·인물)  
 정석중 관동대학교 관광과 교수(관광)  
 함석중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축제)  
 이재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관광자원)  
 김근우 전 한국체육대학 교수(체육)  
 박상덕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과 교수(사회기반시설)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교통)  
 이태교 동우대학 복지행정과 교수(보건복지)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성씨·인물)  
 이상규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추종삼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이상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김준영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 ■ 지원

**위 원** 김원래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양양군청 민원봉사과장  
 이재철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장  
 문종수 양양군청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김호열 양양군청 미래전략과장  
 이상부 양양군청 산림농지과장  
 박상길 양양군청 환경관리과장  
 이한빈 양양군청 건설방재과장  
 조규백 양양군청 해양수산과장  
 장금자 보건소장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현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기술보급과장  
윤 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학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 양양군청 의회사무과장  
한흥빈 전문위원  
박원표 양양읍장  
전도영 서면장  
윤종덕 손양면장  
이향란 현북면장  
김진하 현남면장  
최근상 강현면장

■ 편집

위원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  
위원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교수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진하 현남면장  
김재환 전 양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장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 감수

임효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교정 · 교열

여진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권석순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 사진

양양군청 강원일보사 최낙민 김재환

■ 고문헌 자료제공

고석우 김دون일 박상형 이건주 이근만  
이동철 이병률 이준석 최진영

# 襄陽郡誌

인쇄일 2010년 11월 15일  
발행일 2010년 11월 30일  
편찬 양양군지편찬위원회  
발행 양양문화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82-1 (☎ 671-6269)  
기획편집 양양군지 편집실  
인쇄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